

한일 시민이 함께 만든 세계유산 가이드북

# 일본의 메이지산업혁명 유산과 강제노동



03910

9 788993 741230

ISBN 978-89-93741-23-0

민족문제연구소·강제동원진상규명네트워크

# 차례

|                                  |    |
|----------------------------------|----|
| 들어가며                             | 2  |
| 1. 일본 메이지 산업혁명 유산의 구성과 특징        | 5  |
| 일본의 메이지 산업혁명 유산 분포               | 6  |
| 일본의 산업유산 등재 시도와 유산 구성            | 9  |
| 규슈 지역의 산업유산 시설 안내의 현재 모습         | 12 |
| 2. 일본 메이지 산업혁명 유산의 역사            |    |
| - 침략전쟁, 식민지, 강제노동                | 15 |
| 아시아 침략으로 성취한 메이지 일본의 근대화         | 16 |
| 식민지 조선인 강제동원의 실상                 | 20 |
| 아시아태평양전쟁기 중국인과 연합군 포로의 강제노동      | 24 |
| 3. 강제노동의 현장-제철소, 조선소, 탄광         | 29 |
| 야하타제철소 : 청일전쟁 배상금으로 건설           | 30 |
| 미쓰비시 나가사키조선소 : 어뢰·군함의 생산과 원자폭탄   | 42 |
| 다카시마·하시마의 탄광 : 미쓰비시광업의 폭압의 상징    | 52 |
| 미이케탄광 : 강제노동으로 성장한 미쓰이 재벌의 탄광    | 64 |
| 4. 세계유산에서 강제노동 역사를 전하는 의의        | 75 |
| 세계유산 속의 강제노동                     | 76 |
| 미해결의 전후보상 : 소멸되지 않는 강제노동 피해자의 권리 | 79 |
| 강제동원 역사의 기억과 계승 활동               | 81 |
| 자료                               |    |
| 한일시민단체공동성명서(2017년 7월)            | 85 |

## 들어가며

2015년 7월 5일 독일 본에서 개최된 제39차 유네스코(UNESCO, 국제연합 교육과학 문화기구) 세계유산위원회는 ‘일본의 메이지 산업혁명 유산 : 철강·조선·석탄산업’을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하는 결정을 내렸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되었다는 것은 그 유산이 ‘현저한 보편적 가치’를 지닌 인류 공동의 유산으로 인정받았음을 의미한다. 한 국가나 국민의 전유물이 아니라, 전 인류가 소중히 여기고 보호해야 할 유산, 우리 세대뿐 아니라 다음 세대에까지 잘 물려주어야 하는 유산으로 특별히 지정되었다는 뜻이다.

한국과 일본의 시민단체들은 ‘일본의 메이지 산업혁명 유산’이 일본의 침략전쟁, 식민 지배, 강제동원과 강제노동 등 기억해야 할 어두운 역사도 밝혀야 한다고 비판하고 있다.

‘일본의 메이지 산업혁명 유산’은 과연 유네스코의 정신과 가치를 잘 반영하고 있는 것일까?

‘일본의 메이지 산업혁명 유산’이 등재될 때 세계유산위원회는 일본이 해당 유산을 설명하면서 ‘전체 역사’를 알 수 있도록 하는 해석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특별히 권고하였다. 이에 대해 사토 구니 주 유네스코 일본 대사는 “일본은 1940년대에 일부 시설에서 수많은 한국인과 여타 국민이 의사에 반해 동원되어 가혹한 조건하에서 강제로 노역을 했고,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정부도 징용 정책을 시행했다는 사실을 이해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준비가 돼 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일본은 정보센터 설립 등 피해자들을 기리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세계유산위원회가 권고한) 해석전략에 포함시킬 준비가 돼 있다”고도 말했다.

그러므로 일본정부는 산업시설의 역사 전체를 보여주어야 하며, 이에 관한 진행 상황을 2017년 12월 1일까지 유네스코에 보고해야 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일본 정부가 취한 태도로 볼 때, 세계유산위원회가 제시한 권고를 일본 정부가 충실하게 이행할지는 매우 의문이다.

강제노동 피해자들과 함께 한국과 일본에서 피해의 진상을 밝히고 피해회복을 위해 싸워온 우리는 ‘일본의 메이지 산업혁명 유산’ 설명 속에 불편하지만 외면해서는 안 되는 강제노동 등 ‘어두운 역사’도 담겨야 한다고 생각한다. 일본의 식민지 지배와 침략전쟁으

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의 호소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지 70여 년이 지났는데도 아직까지 강제동원·강제노동의 상처가 해결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어두운 역사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사죄와 배상, 희생자 추도와 기억이 함께 병행되어야 한다. 이것이 우리가 ‘일본의 메이지 산업혁명 유산’ 등재를 비판하는 이유이면서 이 가이드북을 만든 목적이기도 하다.

우리는 이 가이드북에서 ‘일본의 메이지 산업혁명 유산’이란 명칭으로 묶인 산업시설들이 어떤 것이며 그 유산 구성의 문제점은 무엇인지 짚어볼 것이다. 그리고 강제노동의 현장이기도 했던 각 산업시설의 감춰진 역사와 피해자들의 증언에 귀 기울이고, 왜 세계유산에서 강제노동 문제가 부각되어야 하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이 책이 산업화와 전쟁, 국가폭력과 인권침해의 역사를 보여줌으로써 미래를 위한 반성의 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망각의 반대말은 기억이 아니라 정의다’라는 말처럼 강제동원의 역사를 기억하려는 우리의 목소리는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호소이다. 우리는 산업유산이 승리자의 전리품으로만 전락해서는 안 되며, 강자의 기억만을 강요해서도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한다. 유네스코의 정신이 ‘지금, 여기서’ 실현되어야 한다는 의지와 소망을 이 가이드북에 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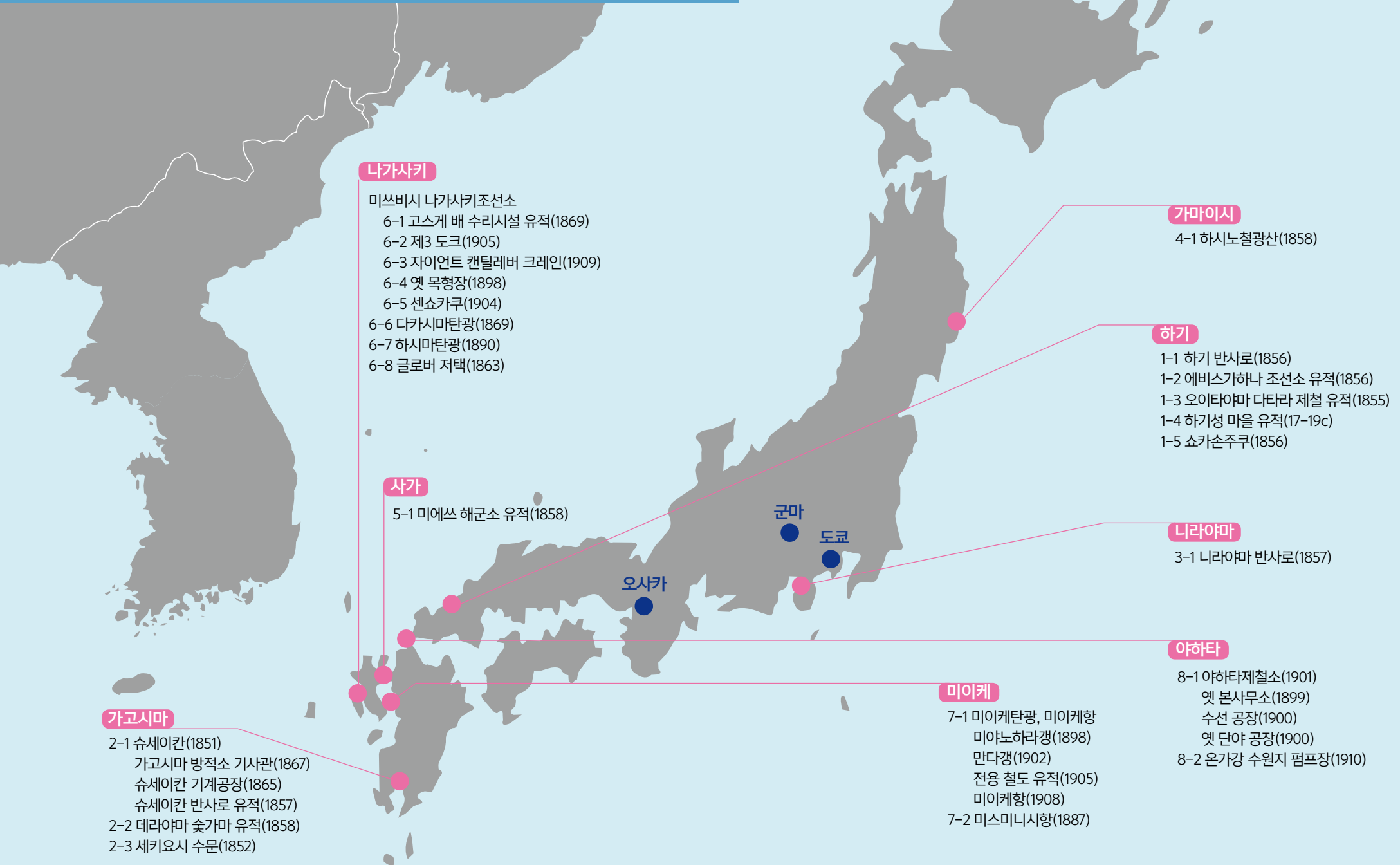
민족문제연구소·강제동원진상규명네트워크

# 1

## 일본 메이지 산업혁명 유산의 구성과 특징



## 일본의 메이지 산업혁명 유산 분포



‘일본의 메이지 산업혁명 유산 : 철강·조선·석탄산업’은 규슈, 야마구치 지역을 중심으로 에도시대 말기인 1850년대부터 메이지 말기인 1910년까지 ‘산업혁명’ 관련 시설이다.

‘일본의 메이지 산업혁명 유산’을 구성하고 있는 시설은 8개현(縣, 지방구역)에 흩어져 있는 총 23개 시설이다. 이 가운데 규슈와 야마구치의 5개현에 산업유산 시설들이 집중되어 있다.

- **야마구치현 하기(조슈번)** 하기 반사로(대포 건조용), 에비스가하나 조선소 유적, 오 이타야마 다타라제철(배 부품 제조) 유적, 하기성 마을 유적, 쇼카손주쿠(교육시설) 5곳이다.
- **가고시마현(사쓰마번)** 슈세이칸(조선, 대포 주조 시설), 데라야마 솟가마 유적(연료 용 목탄), 세키요시 수문(동력 용수) 3곳이다. 슈세이칸 관련 시설에는 슈세이칸 반사로 유적, 슈세이칸 기계공장, 가고시마 방적소 기사관(숙소)이 포함되어 있다. 일본은 데라야마 솟가마 유적과 세키요시 수문을 에도시대 말기 산업화의 초기 유산으로 파악하여 ‘일본의 메이지 산업혁명 유산’에 포함시켰다.
- **나가사키현** 나가사키조선소와 다카시마탄광이 있다. 조선소는 고스게 배 수리시설 유적, 제3도크, 자이언트 캔틸레버 크레인, 옛 목형장, 센쇼카쿠(영빈관) 5곳이다. 다카시마탄광에는 다카시마와 하시마 2곳이 있다. 다카시마탄광을 경영한 글로버 저택(글로버원)도 산업유산 구성 시설이다.
- **후쿠오카현과 구마모토현** 미이케탄광·미이케항과 미스미니시항 2곳이다. 미이케탄광에는 미야노하라갱, 만다갱, 전용 철도 유적이 포함되어 있다.
- **후쿠오카현** 야하타제철소와 온가강 수원지 펌프장(제철소 송수용) 2곳으로 구성되어 있다. 야하타제철소 관련 시설로 옛 본사무소, 수선공장, 옛 단야공장이 포함되어 있다.
- **그밖에 시즈오카현의 나라야마 반사로, 이와테현 가마이시의 하시노철광산, 사가현의 미에쓰 해군소 유적(사가번의 도크 터) 3곳이 산업유산으로 추가되었다.**

이 가운데 메이지 시기 철강, 조선, 석탄의 산업화를 보여주는 것이 후쿠오카현의 야하타제철소와 미이케탄광, 나가사키현의 나가사키조선소와 다카시마탄광(다카시마·하시마)이다.

## 일본의 산업유산 등재 시도와 유산구성

### 명칭을 바꾸고, 총리 주도로 등재 추진

일본정부의 ‘일본의 메이지 산업혁명 유산’ 등재 신청은 1999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처음에는 규슈·야마구치 일대를 ‘근대화 산업유산’이라는 명칭으로 등재를 추진했으나 2014년 1월에 ‘일본의 메이지 산업혁명 유산-규슈·야마구치 관련 지역’으로 명칭과 시기를 변경해 유네스코에 등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세계유산에 포함될 많은 시설들이 현재 가동 중이라는 난점을 극복하기 위해 문화재 관련법을 바꾸기도 하였다.

또한 과거에는 세계유산 등재 업무를 일본정부 내 문화청과 해당 지역 자치단체장이 추진했으나 ‘일본의 메이지 산업혁명 유산’에 관해서는 총리 주도로 진행했다는 점도 주목된다. ‘일본의 메이지 산업혁명 유산’으로 이름이 바뀐 것도 세계유산 등재 움직임에 대해 침략전쟁과 강제노동 등의 문제제기가 나오면서 생긴 일이다.

### ‘밝은 메이지’·‘산업혁명’의 성공신화

‘일본의 메이지 산업혁명 유산’은 조슈와 사쓰마에서 진행된 산업화 시도와 야하타제철, 나가사키조선, 다카시마탄광, 미이케탄광 등 철과 석탄, 조선을 연결시켜 산업화 성공이라는 이야기로 엮여졌다. ‘일본의 메이지 산업혁명 유산’은 기술 혁신과 자본 형성의 관점에서 만들어진 이야기로 일본 산업발전을 찬미하는 내용뿐이다. 거기에는 노동자들이나 전쟁, 식민지 지배 등 인권과 국제적 시야에서 역사를 전체적으로 파악한다는 관점은 없다.

‘산업혁명 유산’이라고 하면서 기술과 시설이라는 ‘자본’의 측면만 강조하고 산업현장에 투입된 ‘노동’을 무시하는 태도는 이미 2014년 세계유산에 등재된 군마현의 도미오카제사장장에서 나타났다. 일본 정부는 도미오카제사장이 서양 기술을 도입해 일본 내 양잠·제사 기술을 개량하여 세계 비단산업의 발전과 소비 대중화에 기여했으므로 세계유산으로서 가치가 있다고 했다. 제사공장 노동자들의 상태나 산업화에 따른 빈부 격차, 조선으로의 자본 진출, 전시기의 군수 생산 등은 설명하지 않았다. 메이지 산업화만 찬미하면서 관광 자원으로 활용하고 있다.

‘일본의 메이지 산업혁명 유산’ 이야기는 에도 말기부터 메이지기까지 진행된 산업화가 일본을 식민지로 전



도미오카제사장(2017.8. 촬영)



락하지 않게 만들었다고 강조한다. 그러나 일본의 산업혁명에 의한 석탄업, 철강업, 조선업 등의 중공업화는 청일·러일전쟁, 제1차 세계전쟁 등 전쟁에 의해 진행되었다. 조선, 타이완, 중국에 대한 침략과 점령, 식민지 지배를 수반한 것이었다. 산업화와 그 확대는 또 다른 전쟁으로 이어졌다.

메이지 시대에 강조된 '식산흥업' '부국강병'이라는 용어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일본의 메이지 산업혁명 유산'을 통한 근대 일본의 산업발전은 전쟁과 깊은 관계를 맺고 출발부터 군사적 성격을 띠었다. 또한 메이지 산업시설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조선인과 중국인, 연합국 포로들이 강제노동한 역사의 현장이기도 했다.

### ‘메이지 일본’: 의도된 편집, 은폐된 역사

편향된 역사인식에 기초하여 산업유산 시기를 1910년까지 한정하면서, '일본의 메이지 산업혁명 유산'에는 일본에 남아 있는 근대산업시설 중 극히 일부만 포함되는 기묘한 현상이 생겼다. 메이지 시기는 역사적으로 1868년 메이지유신으로 막부체제가 전복되어 신정부가 수립된 때부터 메이지천황이 죽은 1912년까지를 일컫는데도 메이지 산업혁명 유산은 1850년대부터 1910년까지로 한정했다. 왜 이렇게 시기를 한정했는지 그 이유는 분명하지 않다.

1927년에 완성된 야하타제철소 가와치(河内) 저수지는 산업유산으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시설이지만 포함되지 않았다. 1963년에 처참한 탄진폭발사고가 일어난 미이케탄광 미카와갱(三川坑)은 1939년에 채굴을 시작한 시설이라 제외되었다. 기타규수의 치쿠호(筑豊) 지역의 탄광은 산업유산에서 아예 배제되었다. 치쿠호는 조선인 15만 명이 강제동원된 탄광지대이다. 관영 야하타제철소는 석탄 공급을 위해 치쿠호에서 후타세탄광을 운영했다. 시기나 의미에서 볼 때 후타세탄광도 '일본의 메이지 산업혁명 유산'에 포함되어야 하나 뚜렷한 이유 없이 빠졌다. 1903년 후타세탄광 화재사고로 64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는 설명도 찾아볼 수 없다.



미이케탄광 미카와갱의 입구와 갱 안의 모습(2017.9. 촬영)

### 다시 '전쟁할 수 있는 나라'로

2015년 아베 총리의 '전후 70년' 담화는 이른바 역사수정주의 인식을 고스란히 담고 있다. 아베 총리는 이 담화에서 조선 식민지 지배를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러일전쟁도 식민지 지배를 받던 아시아와 아프리카 사람들에게 용기를 준 전쟁이라 평가했다. 다만 일본은 '만주사변' 이후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갔다고 하면서도 사죄나 반성은 과거 정권의 발언으로 대신하고 자신의 말로 표현하지 않았다.

피해자에 대한 배상도 언급하지 않았다. 중국인이 전쟁에서 온갖 고통을 겪었다고 했으나 일본 때문이라고는 말하지 않았다. 아시아에 대한 일본의 가해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미국·영국·네덜란드·호주의 포로는 언급하면서 화해를 위한 노력에 감사의 마음을 표한다고 했다. 아이들과 손자들, 그 다음 세대에게 계속 사죄의 숙명을 짊어지게 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담화에서 아베총리는 번영을 평화의 기초로 평가하고 마지막으로 '적극적 평화주의'를 제시했다. '적극적 평화주의'란 미일군사동맹을 강화하여 일본국헌법의 평화주의를 바꾸겠다는 것과 다름없는 표현이다.

자랑스러운 역사만 기억하려는 반성 없는 역사인식은 일본을 다시 한 번 전쟁하는 나라로 만들기 위한 프로젝트와 연동되어 있다. '일본의 메이지 산업혁명 유산'도 그 일환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2015년 8월 15일, 아베 총리의 종전70주년 담화를 비판적으로 보도한 일본 신문 기사

## 규슈 지역 산업유산 시설 안내의 현재 모습

### 유네스코 권고는 이행되고 있는가

2015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는 '일본의 메이지 산업혁명 유산' 시설과 관련해서 '역사의 전모를 밝힐 것'을 일본정부에 권고하였다. 그러나 일본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현재까지 이 권고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가라고 묻는다면, 그 대답은 매우 회의적이다.

2017년 9월 1~5일 현장조사로 확인한 바에 따르면 규슈 지역 산업유산 시설을 소개한 안내판과 자료들은 대부분 연보 위주의 무미건조한 설명들로 가득 차 있다. 야하타제철소의 안내판은 아래 사진처럼 일본어와 영어 안내문이 내용상 차이가 있다.(2017년 9월 현재)

**일본어 안내문 :** 관영 야하타제철소는 세계유산 목록에 등재되어 있는 '일본의 메이지 산업혁명 유산'의 구성 자산 가운데 하나이다. 19세기 중엽, 서양에 문호를 달고 있던 동양의 한 나라는 방어의 위기감으로 서양과학에 도전해 공업을 일으킬 것을 국가의 큰 목표로 삼고 서양의 산업혁명 물결을 받아들여 공업입국의 토대를 쌓았다. '일본의 메이지 산업혁명 유산'은 1850년대부터 1910년까지 일본 중공업(철강, 조선, 석탄산업)의 큰 변화와 국가의 질을 바꾼 반세기의 산업화를 증언하고 있다.

**영어 안내문 :** 1850년대부터 1910년까지 일본의 급속한 산업화를 반영하는 세계유산유적의 자산들 가운데 하나로서 주로 제철, 제강, 조선과 석탄산업에 기반한다. 이러한 성공적인 산업화는 단지 50여년의 짧은 기간 안에 식민지배 없이 일본 자신만의 환경 속에서 이루어졌다.



야하타제철소 옛 본사무소와 온가강 수원지 펌프장에 설치되어 있는 안내판(2017.9. 촬영)

근대 일본의 산업발전을 밑바닥에서 담당했던 노동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빠져 있고 기계와 설비 등에만 초점을 둔 반쪽자리 설명이었다.

산업발전 과정에서 일본인 노동자와 여성, 어린이, 그리고 죄수노동의 역사나 연대와 단결을 통해 인간임을 선언했던 저항의 역사는 여기에 없다. 또한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강제로 끌려와 강제노동을 한 한국인과 중국인, 연합군 포로들의 역사도 빠져있다.

나가사키시가 만든 하시마에 관한 팸플렛도 같다(2017년 9월 현재). 나가사키시 관광추진가가 작성한 팸플렛에는 '외국의 위협'이라는 위기의식이 서양의 지식과 기술을 받아들여 일본 근대화를 달성하게 했다면 한 면의 진실만 말하고 있다.

이러한 의식은 곧장 대만, 조선 등 인근 국가를 침략해 식민지로 만드는 팽창의식으로 바뀌었다.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산업시설들이 전시경제를 지탱했음이 설명되어야 '역사의 전모'에 다가갈 수 있다.

『신나가사키시사(新長崎市史)』 제3권(근대편, 2014)에서는 다카시마탄광이 일본근대사에서의 '고난의 역사', '부정적 유산'을 나타내는 사회교육의 장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메이지 이래 감언이설로 탄광에 데려가 폭력으로 일하게 한 것, 많은 사망자가 생긴 것, 전쟁 중에 한반도와 중국에서 연행해서 같은 일을 하게 한 것을 밝히고, 강제동원된 조선인과 중국인의 증언도 소개하고 있다. '일본의 메이지 산업혁명 유산'을 설명할 때도 '고난의 역사' '부정적인 유산'을 말해야 하지 않을까.



나가사키시가 만든 근대화유산과 하시마 관련 팸플렛(2017.9.)



## 역사찬미만 가득 찬 해설

역사의 어두운 면을 완전히 배제한 설명은 현지 안내원들의 설명에서도 반복되어 나타난다. 대부분의 안내원들은 산업유산에 대한 풍부한 지식으로 해설을 하고 있지만, 정작 전쟁과 강제노동에 관련된 질문만 나오면 모르는 내용이라고 돌려댄다.

아라오시(荒尾市)가 만든 미이케탄광의 역사, 만다갱에 관한 팸플렛(2017년 9월)을 보면, 일본어판에는 “식민지 조선 사람들, 중국 사람들, 연합국 포로 등을 강제노동하게 했다”라고 쓰여 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외국어판에는 강제노동에 관한 설명이 빠져 있다. 현지 가이드도 설명은커녕 조선인이 있었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말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 있다’고 답했다.

산업유산 해설에서 강제노동 문제에 대해 침묵의 카르텔을 맺고 있거나 아니면 눈에 보이지 않는 통제가 있다는 혐의를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현 단계에서는 ‘일본의 메이지 산업혁명 유산’ 설명에서 유네스코의 정신에 기반한 해설은 보이지 않는다. 세계유산을 이용한 관광 상품화와 역사찬미만 있을 뿐이다.

그렇다면 무엇을 어떻게 담아야 할 것인가? 다음 장에서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아라오시가 만든 팸플렛(2017.9.)

# 2

## 일본 메이지 산업혁명 유산의 역사 - 침략전쟁, 식민지, 강제노동



만주출동 일본군 부대의 나남시가 행진, 『만주사변출동기념사진첩』

## 아시아 침략으로 성취한 메이지 일본의 근대화

### 침략전쟁의 시작, 근대화의 출발

동아시아에서 일본은 최초로 서구식 근대화를 시도했다. 일본에서는 막부와 번이 통치하던 정치 체제를 대신해 새로운 중앙집권국가로 근대 개혁(메이지유신)이 추진되었다. 메이지 정부는 산업화를 추진하는 가운데 류큐, 타이완, 조선 등을 점령해 갔다.

일본의 산업혁명은 청일전쟁, 러일전쟁과 함께 진행되었다. 일본은 청나라로부터 배상금을 받아 금본위체제를 확립했으며 야하타제철소를 건설했다. 1850년대부터 1910년에 이르는 '일본의 메이지 산업혁명 유산'은 산업화뿐만 아니라 연이은 침략의 시작을 말해주고 있다.



한일 강제병합 기념엽서

### 세계유산이 된 '정한론'의 산실

'일본의 메이지 산업혁명 유산' 가운데 하나인 쇼카손주쿠는 요시다 쇼인(吉田松陰)이 관여했던 서당이다. 요시다 쇼인은 군비의 확장과 대외침략을 주장했다. 그의 사상적 영향을 받아 메이지 정부 안에서 '정한론'이라는 조선침략론이 등장했다. 정한론은 이웃 국가를 침략하는 전쟁론으로 강화도사건, 청일·러일전쟁, 조선 강제점령으로 현실화되었다.



일장기가 걸린 경복궁  
(1915)



요시다 쇼인 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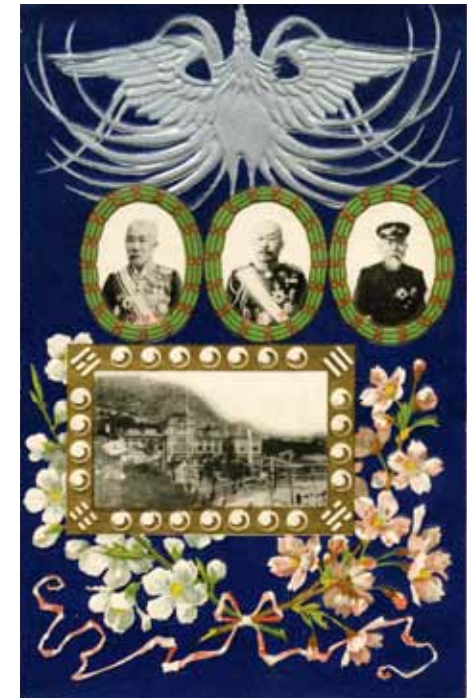
쇼카손주쿠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와 야마가타 아리토모(山縣有朋)는 요시다 쇼인의 사상을 실천에 옮겼다. 이토 히로부미는 일본 제국주의의 아시아 침략과 조선 식민지화를 주도한 인물이다. 이토는 1905년 '한일협상조약(을사늑약)'을 강요해 조선을 '보호국'으로 삼았으며 초대 한국 통감이 되었다.

1907년 대한제국 황제 고종이 '일본의 보호국화는 불법'이라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 헤이그 세계만국평화회의에 특사를 파견하자 고종을 강제 퇴위시키고, 군대도 해산시켰다. 이를 계기로 의병투쟁이 전국으로 확대되었다.

이토는 무력탄압을 지시하였고 당시 한국주차군 사령관 하세가와 요시미치(長谷川好道)가 탄압을 총지휘했다. 의병투쟁에 관한 일본 정부 측 기록에 따르면 1907년부터 1910년 사이에만 최소 14만여 명이 의병투쟁에 참전했고 죽임을 당한 사람은 1만 7000명이 넘었다. 야마가타 아리토모는 일본 육군의 기초를 닦았는데 하세가와 요시미치는 야마가타계의 군인이었다.

하세가와는 데라우치 마사타케(寺内正毅)에 이어 제2대 조선총독이 되어 3·1독립운동을 탄압했다.



한일 강제병합 기념엽서  
(사진은 오른쪽부터 1대 통감 이토 히로부미, 3대 통감 데라우치 마사타케, 2대 통감 소네 아라스케)



일본정부는 쇼카손주쿠를 일본의 산업화를 추진한 인물을 키워낸 곳으로 '일본의 메이지 산업혁명 유산'에 집어넣어 평가하고 있다. 하지만 쇼카손주쿠는 아시아 침략의 사상과 역사를 정당화하는 역사관(歷史觀)이 만들어진 곳이지 산업유산 시설이 아니다.

대외팽창주의를 주장한 요시다 쇼인의 쇼카손주쿠를 포함시킨 것은 과거 전쟁에 대한 반성과 침략을 받은 지역에 대한 배려가 없는 태도이다. 일본 정부의 자세는 주변국에 대한 일종의 모욕이자 기만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일본에는 헌법을 개정하여 해외에 군사력 행사를 할 수 있게 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쇼카손주쿠, 요시다 쇼인의 찬미는 그러한 움직임을 반영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쇼카손주쿠 : 세계유산 등록을 축하하는 플래카드가 걸려있다. (2016.3. 촬영)

### ‘부정적 유산’과 유네스코 정신

유네스코가 탄생한 이유는 인류가 겪은 두 차례 세계대전과 그로 인한 수많은 죄악을 반성하고 이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였다. 유네스코는 인간의 마음속에 평화의 방벽을 세울 것을 지향하여 인간의 존엄을 위해 문화를 보급하고, 정의·자유·평화를 위한 교육을 추진하며 다양한 민족 간의 지적·도덕적 연대를 강화하고, 그에 따라 국제평화와 인류공동의 복리를 실현하기 위한 국제기구이다(유네스코 헌장, 1945년 채택). 1972년 제17차 유네스코 총회는 '세계 문화 및 자연 유산의 보호에 관한 협약'(세계유산협약)을 채택하여 인류 공동의 유산 기준과 그 보호 원칙을 제시하였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은 대체로 아름답고 긍정적인 가치를 지닌 것들이지만, 인류가 다시는 반복하지 말아야 할 비극을 상징하는 유산도 있다. 역사의 반면교사가 되어야 할 이러한 유산들을 우리는 '부정적 유산(Negative Heritage)'이라 부른다. '부정적 유산'이 남긴 상처는 쉽게 지워지거나 치유되지 않는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것을 끊임없이 기억해야 한다.

유네스코는 세계유산협약에 기초하여 인류가 남긴 '부정적 유산'도 세계유산으로 지정하여 보존해왔다. 가장 대표적인 예로 나치 독일이 유대인을 무참히 학살한 폴란드의 아우슈비츠-비르케나우, 아프리카의 노예 무역 중심지였던 세네갈의 고레섬, 총 67회의 핵실험

이 자행된 비키니 환초 핵 실험지 등이 있다.

이 세계유산들을 통해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들이 암울했던 과거를 되돌아보고 같은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을 것을 결의한 것이다.

일본 정부가 말하는 '메이지 일본의 산업혁명'은 기업가나 기술자뿐 아니라 수많은 노동자의 피와 땀에 의한 것이다. 연이은 침략전쟁과 식민지배, 조선인·중국인·연합군 포로의 강제노동 등 기억해야 할 역사를 망각하고 숨겨서는 안된다. '부정적 역사'를 제대로 설명하고 희생자를 기억하며 교훈을 삼을 때 비로소 세계유산으로서 보편적 가치를 세계인들과 공유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우슈비츠 비르케나우 강제수용소와 전시실 내부

## 식민지 조선인 강제동원의 실상

### 남김없이 총동원하라!

‘일본의 메이지 산업혁명 유산’으로 등재된 시설들 가운데 일본제철 아하타제철소, 미쓰이 미이케탄광, 미쓰비시 다카시마탄광(다카시마·하시마), 미쓰비시중공업 나가사키조선소, 가마이시광산과 제철소 등은 조선인 강제동원·강제노동의 현장이기도 하다.

일본은 1931년 만주침략에 이어 1937년 중국에 대한 전면적 침략전쟁을 일으켰다. 따라서 일본은 조선, 대만, 사할린, 남태평양 등 광범위한 지역에 걸친 ‘노무동원계획’을 세웠다. 식민지조선에서 일본은 조선인을 ‘천황의 신민’으로 만들기 위한 황국식민화 정책을 추진했고, 사람과 물자를 총동원하기 위한 체제를 강화해 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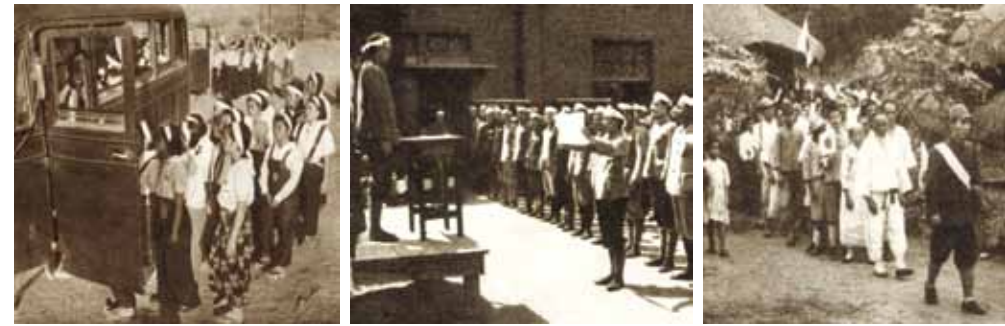
일본으로 약 80만 명의 조선인이 노동자로 동원되었다. 조선여자근로정신대원으로 공장에 동원된 사람들도 있었다. 또한 군인·군속으로 36만 명 이상이 군에 동원되었다. 일본군·위안부'가 된 여성들도 있었다. 조선 내에서는 연인원 600만 명 이상의 조선인이 강제동원되었다.



황국신민서사



징병 홍보 엽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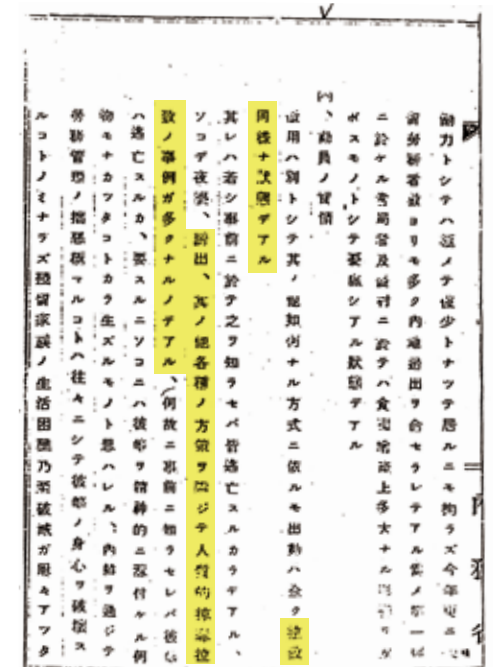
조선인 강제동원 사진(『싸우는 조선(戦ふ朝鮮)』 1945.6. 발간)

### 강제노동, 일상화된 감시와 폭력

1939년부터 시작된 일본의 노무동원은 부족한 노동력을 확보할 목적으로 일본 국가와 기업이 계획을 세워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실행한 것이다. 일본은 감언이설과 폭력으로 조선에서 강제동원 시켰다. 동원된 사람들은 일본 각지의 탄광, 광산, 토목공사현장, 군수공장, 항만 등으로 끌려가 폭력적 감시 아래에서 행동의 자유도 없이 임금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생활을 강요당했다.

동원된 이들은 가혹하고 열악한 환경 아래에서 일하며 심각한 민족차별을 받았다. 배고픔에 시달렸고, 또 기간이 만료되어도 귀국이 허락되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남겨진 가족들은 수입이 끊겨 궁핍에 시달렸다. 당시 기록에는 이러한 동원상황을 ‘인질적 약탈, 납치’로 묘사한 것도 있다.

‘일본의 메이지 산업혁명 유산’ 관련 시설에서는 약 33,400명의 조선인이 강제노동 피해를 입었다.



내무성 촉탁 소모태용(小暮泰用)이 내무성 관리국장에게 보낸 보고서(復命書, 1944.7.31.) 동원 실정이 ‘납치와 같은 상태’이며, ‘야습(夜襲), 유인 등 각종 방법을 강구해서 인질적 약탈, 납치의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고 보고했다.



〈'일본의 메이지 산업혁명 유산' 관련시설의 조선인·중국인·연합군포로 동원규모〉

| 강제노동 현장              | 조선인                                                 | 중국인               | 연합군포로               |
|----------------------|-----------------------------------------------------|-------------------|---------------------|
| 야하타제철소               | 야하타제철소 약 4,000명<br>야하타항운 약 4,000명<br>후타세탄광 약 4,000명 | —<br>201명<br>805명 | 1,353명<br>—<br>601명 |
| 나가사키조선소              | 약 6,000명                                            | —                 | 약 500명              |
| 다카시마탄광<br>(다카시마·하시마) | 약 4,000명                                            | 409명              | —                   |
| 미이케탄광                | 9,264명                                              | 2,481명            | 1,875명              |
| 가마이시제철소<br>가마이시광산    | 1,263명<br>약 1,000명                                  | —<br>288명         | 401명<br>410명        |
| 계                    | 약 33,400명                                           | 4,184명            | 5,140명              |

주 : 야하타제철소에는 야하타항운과 후타세탄광을 관련시설로 포함하여 강제동원 수를 합계했다.  
미이케탄광은 만다갱·미야우라갱·요쓰야마갱·미카와갱에 강제동원된 수의 합계이다.

사망자 수는 알려진 것만 보면, 미쓰비시 다카시마탄광의 하시마갱 약 50명, 미이케탄광 약 50명, 나가사키조선소 약 60명이다. 다카시마탄광·다카시마갱과 야하타제철소의 경우 적은 수밖에 밝혀지지 않았다. 나가사키에서 원자폭탄의 피해를 입은 조선인과 그 뒤의 상황도 정확히 알 수 없다.

## 강제노동금지협약 위반!

‘일본의 메이지 산업혁명 유산’에서 식민지 조선인의 강제노동 문제는 유네스코만의 문제가 아니다. 이미 1999년 국제노동기구(ILO)의 전문가위원회는 일본에 의한 한국인, 중국인 전시 강제노동은 강제노동금지협약 29호를 위반한 것이라고 하였고, 이후 계속해서 일본 정부에게 문제 해결에 나설 것을 권고해왔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계속 침묵하고 있다.

일본정부는 오히려 한국에서 ‘전범기업’으로 비판 받고 있는 미쓰이, 미쓰비시, 신일철주금(新日鐵住金)의 산업시설을 세계유산으로 등재시키려는 활동을 추진하며 그곳에서 강제노동이 있었음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일본 정부는 강제노동의 역사를 인정하고 침략전쟁과 강제노동이라는 부정적 유산을 명시할 것을 요구받고 있다.

## 강제동원·강제노동은 없었다?

2015년 7월 ‘일본의 메이지 산업혁명 유산’ 등재 결정 당시 일본 유네스코대사는 다음과 같이 발언했다.

Japan is prepared to take measures that allow an understanding that there were a large number of Koreans and others who were brought against their will and forced to work under harsh conditions in the 1940s at some of the sites, and that, during World War II, the Government of Japan also implemented its policy of requisition.

밑줄 친 부분은 “수많은 조선인 등이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연행되어 가혹한 상태로 노동을 강요당했다”라고 번역할 수 있다. “others”는 중국인이나 연합군 포로를 의미한다. 그리고 일본대사는 정보센터 설치 등 희생자를 기억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러한 영어 표현은 국제사회에 대해 조선인 강제동원·강제노동을 인정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이 발언 후 일본 정부는 “forced to work”는 “강제노동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면서 “전시기 한반도 출신자의 징용은 국제법상 강제노동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강변했다.

조선인이 의사에 반해 징용된 일은 있었으나 위법한 강제노동이 아니었다고 주장한 것이다. 강제노동은 인정하지 않지만 일하게 한 적은 있었고, 징용시기를 한정해서 징용은 합법이며 범죄가 아니라는 일본 정부의 주장은 역사를 자신에게만 유리하게 고쳐 쓰려는 억지에 지나지 않는다.

일본 정부는 강제동원된 조선인 수와 사망자 수를 여전히 밝히지 않고 있다. 일본 국가와 기업은 억울한 죽음을 당한 조선인이 몇 명인지, 부상자는 몇 명인지, 아직도 진상규명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 않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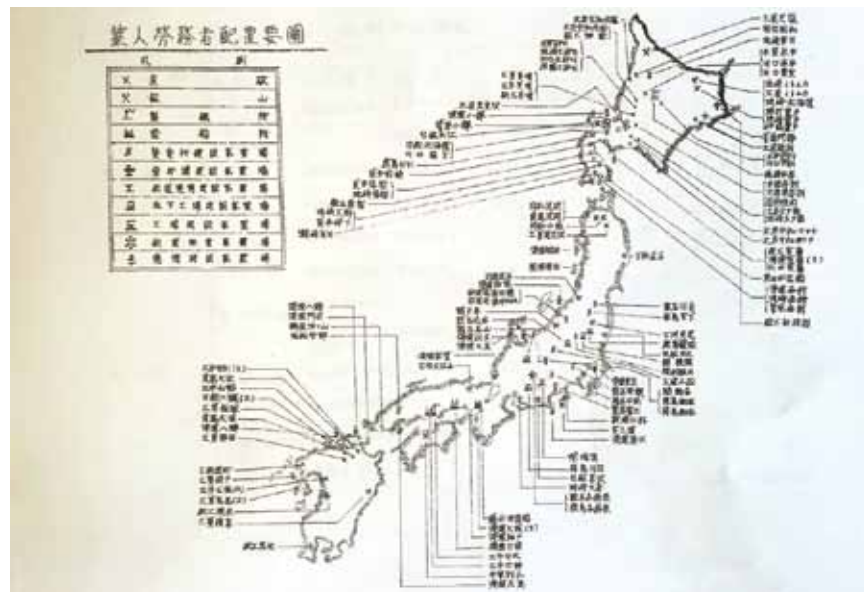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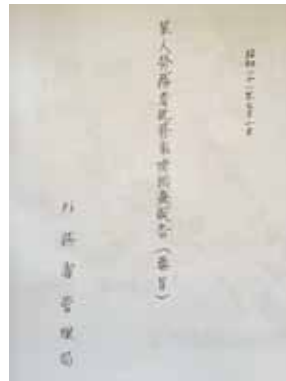
4장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조선인의 강제동원·강제노동 문제는 바로 피해자의 빼앗긴 인권 회복의 문제이다.

## 아시아태평양전쟁기 중국인과 연합군 포로의 강제노동

### 중국인 강제노동

일본은 침략전쟁의 장기화와 확대로 부족해진 노동력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조선인뿐만 아니라 중국인도 강제연행했다. 일본 외무성은 전쟁이 끝난 뒤인 1946년 3월에 중국인의 연행상황을 모은 『화인노무자 취로사정 조사보고서(華人勞務者就勞事情調査報告書)』를 작성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인은 1943년 4월부터 1945년 6월까지 일본군과 현지 노무통제기구인 '화북노동협회(華北勞工協會)' 등이 연인원 3만 8,935명의 중국인을 일본 각지 135개 사업소로 연행했다. 중국인 연행자 가운데 17.5%인 6,830명이 사망했다. 사망진단서의 사망원인 항목에 대장염, 위장염이라고 기재된 것도 있는데 영양실조, 혹사, 학대로 인한 사망을 은폐한 것이다. 중국 내 수용소에서도 학대당했고, 연행 도중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사망했다.



외무성관리국, 『화인노무자 취로사정 조사보고서』 (1946.3) 표지와 중국인 노무자 배치도

일본은 중국인을 포로로 취급하지 않았고 '공출'이나 '모집' 형식으로 계약을 위장하여 연행했다. 중국인 연행자들의 저항투쟁도 있었지만 경찰과 헌병에 의해 탄압받았다.

'일본의 메이지 산업혁명 유산' 관련 시설 가운데 미이케탄광 2,481명, 미쓰비시 다카시마탄광(다카시마·하시마) 409명, 일본제철 야하타제철 관련 야하타항운 201명, 일본제철 후타세탄광 805명 등 3,896명이 연행되었다. 미이케에서는 약 500명, 다카시마·하시마에서 30명, 야하타항운에서 20명, 후타세탄광에서 89명이 사망했다. 일본제철 가마이시광산에도 중국인 288명이 연행되었다.

### 허베이성에서 하시마로 끌려간 중국인 리칭윈(李慶雲) 씨

리칭윈 씨는 1942년에 팔로군에 들어가 1943년 11월 일본군에 포위되어 잡혔다. 일본군은 마을을 습격하여 집에 있던 물건을 약탈하여 태웠다. 고문을 받고 몇 번이고 기절했다. 감옥에서 수용소로 이송되었다가 하시마로 끌려갔다. 하시마에서는 허술한 목조 가옥에 수용되어 40~50명이 한 방에서 살았다. 휴일도 없이 하루에 12시간 2교대로 일했다.

갱 안에서는 훈도시(속옷) 차림에 거의 알몸인 채로 노동을 강요당했다. 공복으로 헝기증이나 석탄을 씹는 작업이 지연된 적이 있었는데 감독이 뒤에서 나무 몽둥이로 머리를 때렸다. 아파도 쉴 수 없고 치료도 받지 못하고 오히려 배식량이 삭감되었다. 2명이 가스 누출로 죽었을 때 7명이 힘을 합쳐 탄광장과 협상을 요구하며 노동을 거부했다. 7명은 묶인 채 난타를 당해 경찰에 끌려갔다. 경찰관이 칼로 목덜미를 베어 선혈이 터져 나왔다. 귀국 뒤 대일협력자로 간주되어 눈치밥을 먹었다.

- 나가사키재일조선인의 인권을 지키는 모임, 『(개정증보판)군함도에 귀를 기울이면』, 2016



2002년 7월, 오른쪽부터 하시마에 끌려간 리칭윈, 다카시마에 끌려간 리앤수양인(連双印) 씨(『우라카미(浦上) 형무지소 중국인 원폭희생자 추도비 보고집』, 2008)



2004년 12월, 나가사키지방법관앞에서 인간의 존엄성 회복을 요구하는 중국인들(『우라카미형무지소 중국인 원폭희생자 추도비 보고집』, 2008)

## 연합군 포로 강제노동

일본이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잡은 연합군 포로는 35만 명에 이르렀다. 그 가운데 영국, 네덜란드 등 유럽과 미국의 연합군 포로가 약 15만 명이었다. 가혹한 처우로 인해 패전 당시 연합군 포로의 수가 11만 1,902명으로 줄었다. 사망자가 3만 명을 넘은 것이다.

일본은 연합군 포로 약 3만 6,000명을 일본 본토 130여 곳의 수용소로 보내 강제노동을 시켰다. 그곳에서 3,415명이 사망했다(포로정보국, 『포로취급의 기록』). 이송 도중에 공격을 받아 바다에 빠져 죽은 포로는 1만 명이 넘는다. 수송선은 '헬 ship'(hell ship, 지옥선)이라 불렸다.

‘일본의 메이지 산업혁명 유산’ 가운데 미이케탄광 1,875명, 미쓰비시 나가사키조선소 약 500명, 일본제철 야하타제철소 1,353명, 일본제철 후타세탄광 601명 합계 4,329명의 연합군 포로가 동원되어 강제노동에 시달렸다.

미이케탄광 138명, 나가사키조선소 113명, 야하타제철소 158명, 일본제철 후타세탄광 54명 합계 463명이 사망했다. 일본제철 가마이시제철소에도 연합군 포로가 동원되었다.

## 필리핀에서 포로가 되어 미이케탄광으로 끌려간 레스터 I. 테니

레스터 I. 테니는 1942년 4월 필리핀 바탄에서 포로가 되었다. 수용소에서 탈출하여 게릴라에 들어갔지만 잡혀 고문을 당했다. 바탄, 카바나투안을 거쳐 마닐라에서 오무타수용소로 이송된 그는 미이케탄광에서 하루 12시간 강제노동을 당했다. 때로는 삼이나 곡괭이, 석탄 운반용 철쇄로 구타당하는 등 학대를 당했다.

- 레스터 I. 테니, 『바탄의 먼 길 너머에』, 2003년



레스터 I. 테니 씨 (2010)

## 인도네시아 자바에서 포로가 되어 미이케탄광으로 끌려간 폴 다니엘

폴 다니엘 씨는 자바 섬에서 포로가 되어 1943년 12월 후쿠오카의 비행장 공사에 동원되었고, 1944년 12월 미이케탄광으로 이송되었다. 그는 학대와 고문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다.

“입에 호스를 넣어 물이 채워지면 배 위에 올라탔다. 때로는 무릎 뒤에 작대기를 꺼서 무릎을 꿇게 한 뒤 물이 든 바구니를 머리 위로 들게 한 적도 있었다. 일본인 광부 몇 명과 우리 포로 몇 명이 조를 짰다. 작업이 고되었다.”



2011년 10월, 도쿄에서 열린 「전 미군 포로·가족과의 교류회」. 미쓰이 미이케탄광에 끌려간 미군 포로들이 일본정부 초대로 방일하여 시민과 교류회에 참석했다.



가족에게 전한 포로 생활은 끔찍했다. 풀 씨는 귀국을 해서도 악몽에 시달린 적이 많고 소리를 치르거나 땀을 너무 흘려 아내를 놀라게 했다고 한다.

- POW연구회 조사, 2017년 가족 증언

# 3

## 강제노동의 현장 - 제철소, 조선소, 탄광



‘부탁한다 석탄 비행기도 군함도 탄환도 석탄으로부터다!’  
『석탄통제회보』(1944.3) 뒷표지

## 야하타제철소: 청일전쟁의 배상금으로 건설



야하타제철소 용해로전경(제철소공제조합구매부, 『사진첩』, 1932)

## 청일전쟁의 전쟁터가 된 한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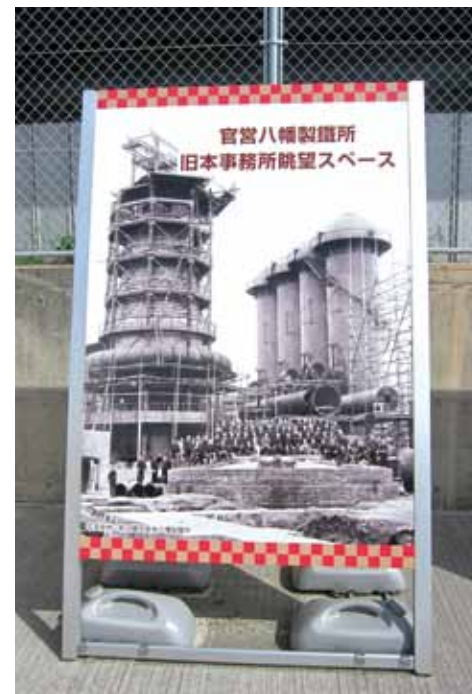
이 그림은 『조선안성도격전도(朝鮮安城渡ノ激戰之図)』라는 청일전쟁을 묘사한 다색판화(錦絵, 니시키에)이다. 1894년 7월 29일 일본군은 조선의 성환에 있던 청군을 공격하기 위해 서울에서 약 60km 남쪽에 위치한 안성천을 건너려 했다. 일본은 조선에 대한 청의 영향력을 배제하고 조선 지배권을 확보하기 위해 청일전쟁을 일으켰다. 일본군은 조선 왕궁을 점거하고 동학농민군을 공격했다. 청일전쟁의 주된 전쟁터는 한반도였다.



## 전쟁으로 성장한 야하타제철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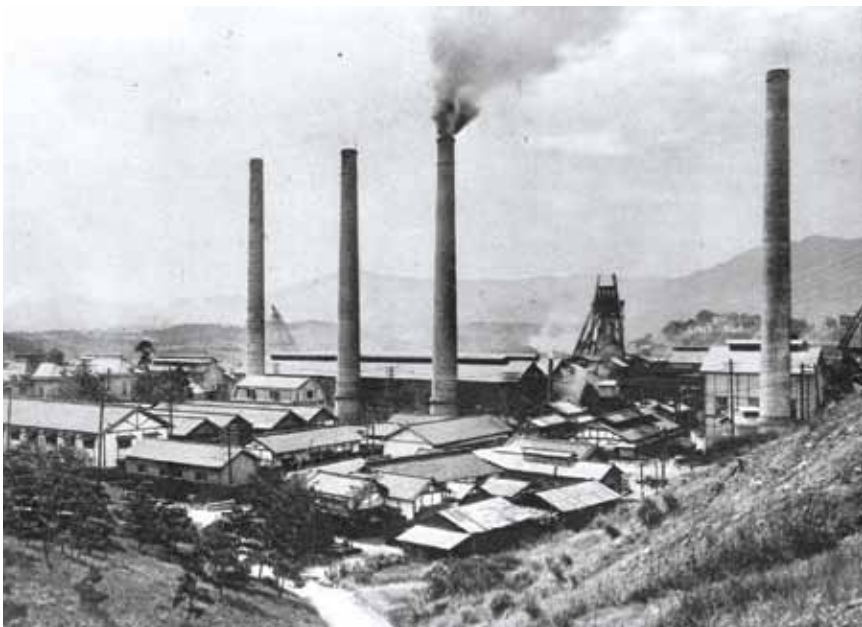
청일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은 청으로부터 막대한 배상금을 받았다. 청이 지불한 2억 양은 당시 일본의 4년 치 국가예산에 해당하는 금액이었다. 일본은 배상금의 80%를 군비 확장에 썼고, 나머지 20%를 관영 야하타제철소의 건설과 철도, 전신·전화사업에 투자했다. 배상금은 파운드로 지불되어 일본은 그것을 이용해 금본위제를 확립했다.

관영 야하타제철소는 1901년에 조업을 시작했다. 조업이 안정될 때까지 10년이 걸렸다. 야하타제철소는 일본 중공업의 발전을 이끌었으며 1906년 일본 국내 철강 생산의 90%를 차지했다. 원료인 철광석은 중국의 다예광산(大冶鉱山) 등에서 수입했다. 야하타제철소는 석탄을 공급받고자 치쿠호 지역의 탄광을 매



히가시다 제1고로 건설중에 방문한 이토 히로부미 일행 기념사진(야하타제철소 옛 본사무소, 2017. 9. 촬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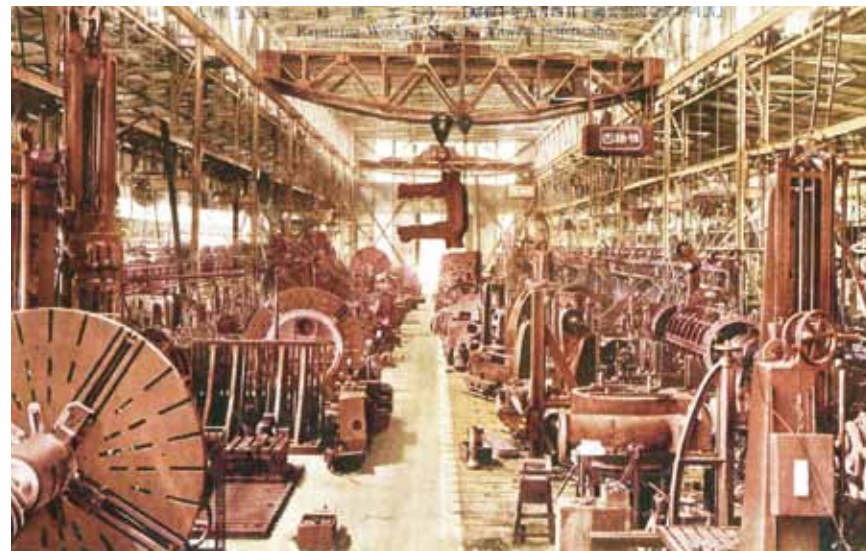
후타세탄광(제철소공제조합구매부, 『사진첩』, 1932)

수하여 관영 야하타제철소 후타세출장소(후타세탄광)를 운영했다. 후타세탄광에서는 1903년 1월 우루노갱 화재사고로 64명, 1913년 2월 중앙수직갱 가스폭발사고로 101명이 숨졌다.

### 불꺼진 용광로, 노동자의 권리투쟁

야하타제철소는 동양 최대 제철공장이 되었으나 노동자들의 생활은 고되었다. 하루 12시간 2교대였으며 임금도 낮았다.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 각지에서 민주주의와 권리 의식이 높아지면서 야하타 노동자들도 권리 의식이 싹트기 시작했다. 1919년 야하타에서 일하던 니시다 켄타로(西田健太郎)가 식당에서 8시간 노동제, 노동조건, 환경개선 등을 호소했다. 탄원서가 제출되었으나 요구는 실현되지 못했다. 그 뒤 니시다와 아사하라 겐조는(淺原建三) 노동조합인 일본노우회(日本勞友會)를 결성했고 1920년 2월 두 번의 파업까지 결행하여 8시간 노동, 임금 인상, 후생 시설 개선 등을 쟁취했다.

1923년에는 야하타구 에다미쓰에서 기타큐슈기계철공조합이 결성되었고, 그 후 일본노동총동맹 규슈연합회로 개편되었다. 1928년 중의원 보통선거에서 아사하라 겐조가 무산정당인 규슈 민헌당(民憲黨) 소속으로 출마하여 당선되기도 했다. 중국 침략전쟁을 감행한 일본 정부는 고양되는 노동운동을 탄압했다.



수선공장 내부(1935, 엽서)

### 전쟁의 확대, 폭증하는 철강 생산

일본이 중국으로 침략전쟁을 확대하자 철강의 수요 또한 늘어났다. 일본 정부는 1934년 야하타제철소를 중심으로 관영과 민영 제철업을 합병하여 독점기업인 일본제철을 설립했다. 1937년에 중일전쟁이 시작되자 이듬해 일본군은 중국의 다예광산을 점령하여 일본제철 소유로 만들고 대량의 철광석을 야하타로 수송했다. 1945년 패전할 때까지 일본은 야하타에서 생산한 철강으로 군함과 어뢰, 전투기 등을 제작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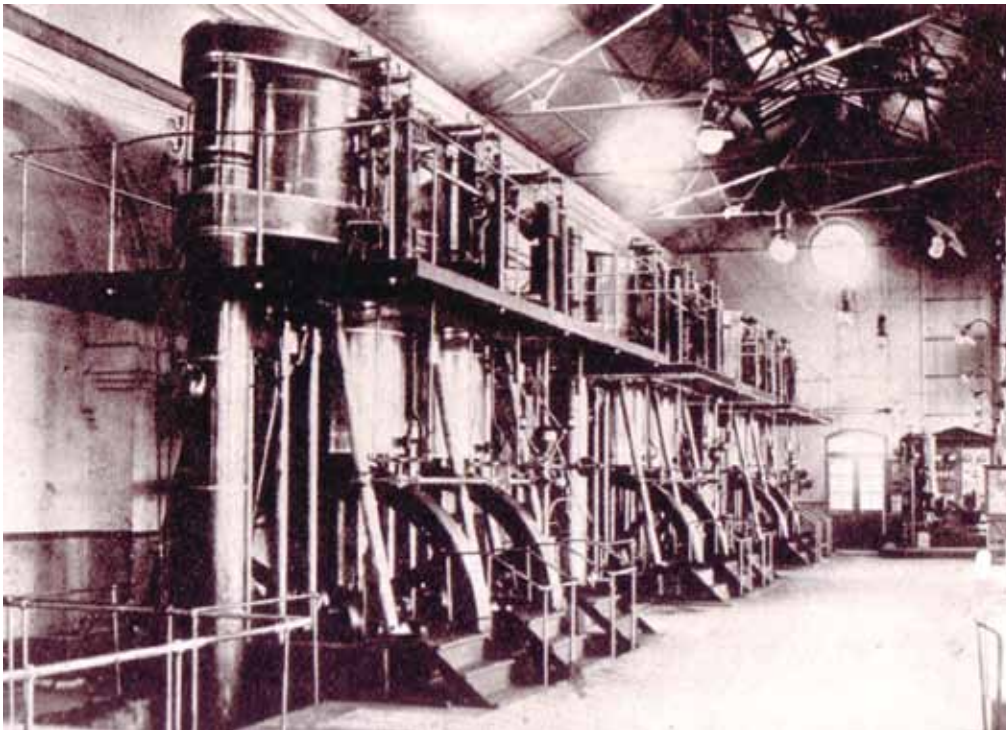
일본제철 야하타제철소는 전쟁 때문에 폭발적으로 늘어난 철강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각지에서 노동력을 동원하였다. 일본제철은 식민지 조선에서 사람들을 강제동원하

여 제철공장에 4,000명, 항운에 4,000명, 후타세탄광에 4,000명을 배치했다. 또한 야하타항운에 중국인 201명, 후타세탄광에 중국인 805명, 제철공장에 연합군 포로 1,350명, 후타세탄광에 연합군 포로 600명이 강제동원되었다.

일본이 패전한 후 미군정이 추진한 재벌 해체 정책에 따







온가강 수원지 펌프실 내부(제철소공제조합구매부, 『사진첩』, 1932)

라 일본제철은 1950년에 야하타제철, 후지제철, 하리마내화연와, 일철기선 등 4개사로 분할되었다. 1970년에는 야하타제철과 후지제철이 합병되어 신일본제철이 되었으며 2012년에는 신일본제철이 스미토모금속과 합병하여 신일본주금이 되었다. 현재 야하타제철소는 신일철주금 산하에 있다.

### 가마이시와 제철

‘일본의 메이지 산업혁명 유산’에는 이와테현 가마이시의 하시노철광산 유적(일본 최초의 서양식 고로 터)이 포함되어 있다. 이 광산 유적은 에도시대 말에 개발되었다. 고로를 만들어 철광석을 녹여 선철을 생산한 것이다. 1880년 일본 정부는 관영 가마이시제철소를 설립했다. 일본 최초의 제철소이다. 1883년 불하하여 가마이시광산 다나카제철소가 되었다.

중일전쟁 이후 일철광업 가마이시광산과 일본제철 가마이시제철소에서도 강제동원이 있었다. 가마이시제철소는 1945년 미군에 의해 7월과 8월 두 번에 걸쳐 함포사격을 받

아 파괴되었다. 이 함포사격으로 인한 사망자는 1,000명이 넘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조선인과 연합군 포로도 희생되었다.

끌려간 조선인 수는 가마이시광산과 가마이시제철소를 합하면 약 2,200명으로 추정된다. 기록으로 확인된 사망자는 가마이시광산에서는 18명, 가마이시제철소에서는 39명이 있으며 그밖에 13명이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1995년 9월 가마이시제철소로 끌려가 함포사격 등으로 희생된 조선인 유족이 일본 정부와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유골 반환, 미불금 반환, 위자료 지불, 사죄 광고 게재 등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신일본제철은 1997년 법적 해결 대신 유족과 ‘화해’하면서 2,005만 엔과 위령비를 제공했다.

중국인도 가마이시광산에 강제연행 당했다. 1944년 11월에 197명, 1945년 2월에 91명, 합계 288명이 끌려갔다. 이 가운데 123명이 숨졌다. 연합군 포로는 가마이시제철소에 401명, 광산에 410명, 합계 약 800명이 강제노동을 했다. 65명이 숨졌는데 이 가운데 미군 함포사격으로 인한 사망자가 34명이다.



가마이시광산



하시노철광산의 고로(高炉) 유적



1997년 10월 2일, 한국에서 열린 가마이시 희생자 추도제. 일본에서 일철 가마이시소송은 ‘화해’를 했지만, 일철 오사카소송은 패소했다. 한국에서는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실정이다.

### 17세에 야하타제철소로 동원된 김규수 할아버지

1943년 1월경, 전라북도 군산에서 야하타제철소로 끌려갔다. 일본 후쿠오카 도바타(戸畑)항에 도착할 때까지 어디로 무엇을 하러 가는지 몰랐다. 묘켄(妙見)이라는 훈련소에서 2주간 정신훈련, 군사훈련 등을 받은 후 야하타제철소에 배치되었다. 공장 내 각종 원자재나 생산품 등을 실어 나르는 열차의 소통을 위한 신호소에서 선로 전환과 관리를 담당했다. 1일 2교대로 근무하였고, 외출과 개인행동이 전혀 허용되지 않았다.



어린 나이에 낯선 외국으로 강제 동원된 김규수 할아버지는 배고픔과 외로움에 밤낮으로 울며 지냈다. 3개월쯤 지나 친구와 함께 도망쳤다가 붙잡혀 수일 간 고문을 당했다. 회사로부터 월급에 관한 설명은 전혀 듣지 못했다.

- 신일본제철 손해배상 청구소송 원고로서 피해 사실 증언(2007.6.15.)

### 징용과 징병, 두 번 강제동원된 주석봉 할아버지

19세 되던 1943년, 전라북도 전주에서 야하타제철소에 끌려갔다. 징용을 안가면 배급이 끊겨 식구들이 굶을 수 밖에 없으니 징용을 피할 길이 없었다. 야하타제철소에서는 삽으로 탄을 옮기는 단순 막일을 했다. 1일 3교대로 일했다. 조선인들은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자리에 배치하지 않았다. 조선인을 수준 낮은 민족으로 차별하는 분위기였다. 배급량이 적어 항상 배가 고팠다. 근처 용광로에서 일하던 연합군 포로들은 길가에 버려진 굴껍질까지 주워 먹는 것을 목격했다.



‘징용’ 글자가 새겨진 옷을 입고 다녔기 때문에 멀리 도망갈 수도 없었고, 도망치다 잡히면 거의 죽을 정도로 맞았다. 월급은 고향으로 송금한다며 주지 않았다. 가장 고통스러운 것이 배고픔이었다면, 가장 무서운 것은 공습이었다. 야하타 일대 군수공장에 공습이

찾아져서 매우 불안한 나날을 보냈다. 20살이 되자 징병 영장이 나와 제철소를 떠났다.

- 신일본제철 손해배상 청구소송 추가 제소를 위한 예비면담(2009.9.17.)

김규수, 주석봉 등 한국인 피해자 12명은 신일철주금(일본제철의 후계회사)에 사죄와 배상을 요구하였고 지금도 소송을 계속하고 있다. 2005년부터 3건의 소송이 진행되는 가운데 원고 6명이 사망했고, 3명도 연로하여 더 이상 진술이 어려운 상태이다.

### 17세에 야하타제철소로 끌려간 이천구 할아버지

1942년 9월경 충청남도 서천에서 야하타제철소에 끌려갔다. 면서기(호적계)와 순사가 함께 와서 며칠까지 면사무소로 오라고 했다. 도망치면 부모들이 고통을 당하니까 어쩔 수 없이 징용에 응했다. 야하타제철소에서는 암모니아 비료를 생산하는 곳에서 일했다. 그때 연합군 포로도 힘든 노동에 혹사당하고 있었다. 1943년 제철소를 탈출하여 와카마쓰(若松)의 이마무라(今村) 제작소에서도 잡부로 일했다.



강제동원 될 당시 엮인 모습의 이천구 할아버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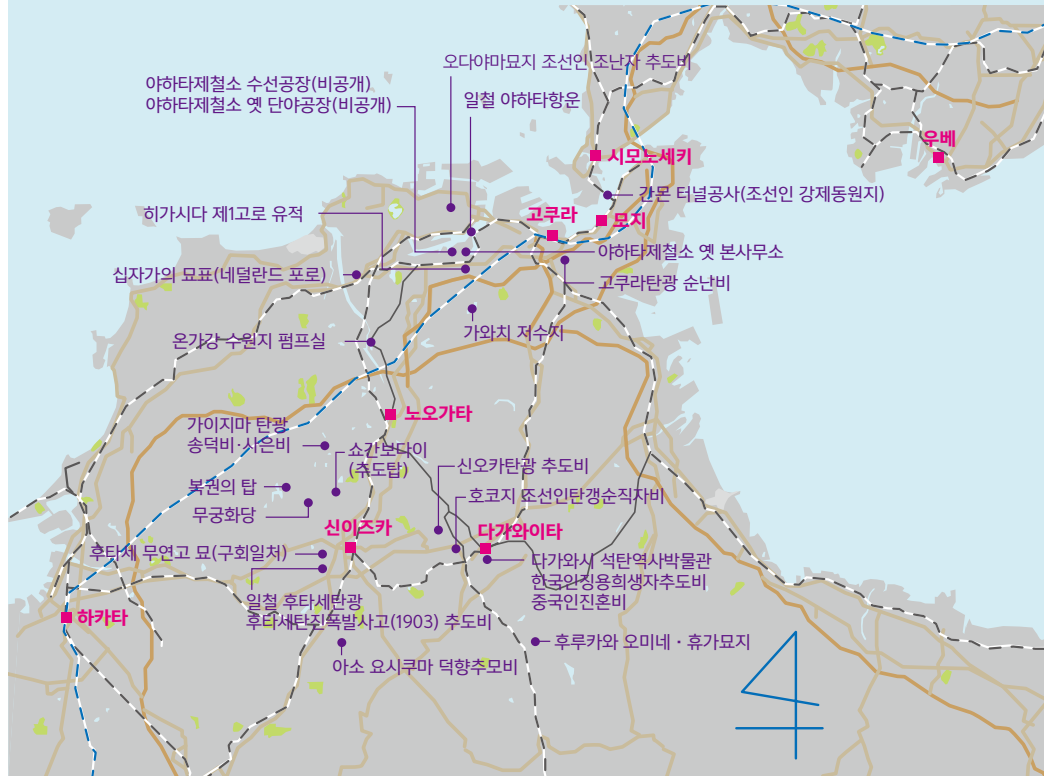
해방이 되고 귀국을 위해 시모노세키로 왔지만 승선권을 얻을 수는 없었다. 시모노세키에는 많은 사람들이 몰려 들었다. 하루에도 몇 십 명이 굶거나, 병들거나, 전염병으로 죽어갔다. 시체 치우는 일을 하면 승선권을 빨리 준다고 해서 열흘 간 그 일을 하고 승선권을 받아 귀국할 수 있었다.

-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 『강제동원 구술기록집③ 똑딱선 타고 오다가 바다 귀신 뵈 뻔 했네』, 2006





## 야하타제철소 · 치쿠호탄전 관련 시설과 주변 지도



## 시설견학 안내



### 무궁화당

2000년 12월 '재일 치쿠호 코리아 강제연행 희생자 납골식 추도비 건립실행위원회'(현 '무궁화당 우호친선의 모임')가 시립 이즈카영원(飯塚靈園) 내에 건립한 납골당. 주위에 강제동원의 역사를 조각한 회랑이 있다.



1594-1 Shōshi, Iizuka-shi, Fukuoka-ken **교통** JR 신이즈카역(新飯塚駅) 앞에서 JR버스를 타고 가사기바시(笠置橋) 정류장에서 하차, 도보 5분 **개원시간** 8:30~17:00 **휴원 연말 연시** **입장료** 없음





## 다가와시 석탄역사박물관

치쿠호에서 최대 규모를 자랑한 미쓰이 다가와(田川)공업소 이타(伊田)수직갱 터에 있는 박물관(1983년 개관). 약 1만 5천 점의 석탄 관련자료, 2011년 세계기억유산으로 등재된 야마모토 사쿠베(山本作兵衛)의 탄광기록화 등 소장. 공원에는 한국인징용희생자위령비, 강제노동된 중국인을 추모하는 '진혼비'가 있다.



2734-1 Ita, Tagawa-shi, Fukuoka-ken **교통** JR-헤이세이 치쿠호 철도 다가와이타역(田川伊田駅) 하차, 도보 8분 **관람시간** 9:30~17:30 (입장은 17:00까지) **휴관** 매주 월요일, 연말연시 **입장료** 어른 400엔 고등학생 100엔 초·중학생 50엔



## 야하타제철소 옛 본사무소

1899년 준공, 1922년까지 야하타제철소 본사무소로 사용된 건물.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지정된 장소에서만 관람 가능.



Edamistu, Yahata Higashi-ku, Kitakyushu-shi, Fukuoka-ken **교통** JR SPACE WORLD역에서 도보 10분 **관람시간** 9:30~17:00 (입장은 16:30까지) **휴관** 매주 월요일 **입장료** 무료 ✓해설사 상주



## 온가강 수원지 펌프장

1910년에 조업을 시작한 야하타제철소 급수 시설. 지금도 가동 중이며 내부는 비공개. 전시 패널이 설치되어 있는 지정된 장소에서만 견학 가능



1 Chome-3-1 Dotenouchi, Nakama-shi, Fukuoka-ken **교통** JR 치쿠젠하부역(筑前垣生駅)에서 도보 약 25분 **관람시간** 자유 **입장료** 무료 ✓주말과 공휴일에는 해설사가 상주 (10:00~16:00)



## 히가시다 제1고로 유적

1901년에 조업을 시작한 관영 야하타제철소 제1고로. 현존하는 고로는 1962년부터 1972년까지 조업한 것. 현재 사적공원으로 공개, 전시 패널도 있다.



2 Chome-3-12 Higashida, Yahatahigashi-ku, Kitakyūshū-shi, Fukuoka-ken **교통** JR SPACE WORLD역에서 도보 5분 **관람시간** 9:00~17:00 **휴관** 연말연시 **입장료** 무료

## 미쓰비시 나가사키조선소 : 어뢰, 군함의 생산과 그리고 원자폭탄



전함 '도사(土佐)'를 건조중인 미쓰비시나가사키조선소

### 미쓰비시가 있는 곳에 전쟁이 있다

미쓰비시는 일본제국주의가 일으킨 침략전쟁과 함께 성장한 대표적인 재벌이다. 미쓰비시 광업과 중공업은 전쟁수행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회사였다. 일본이 침략전쟁을 확대하는 동안 미쓰비시 나가사키조선소는 82척의 군함과 1만 개 이상의 어뢰를 생산했다. 당시 '일본 전함의 자량'이라고 선전한 '무사시(武蔵)'를 비롯해 진주만 기습에 사용된 어뢰도 바로 이곳 나가사키에서 만들어졌다.

개항 당시 에도막부는 네덜란드 지도를 받아 해군전습소와 함선을 수리하는 나가사키용 철소(熔鐵所)를 만들었다. 이것이 나가사키조선소의 효시이다. 메이지 정부는 이것을 관영 나가사키조선국으로 운영했다.

### 작은 상회에서 군수재벌로 급성장

이와사키 야타로는 1873년 미쓰비시상회를 설립하고 이듬해 대만침략 때 나가사키항에 배를 조달, 병사들을 실어 나르는 등 해운업으로 이익을 얻었다. 미쓰비시는 1881년에 다카시마탄광을 인수하고 1884년에 나가사키조선국을 위탁받아 나가사키조선소로 경영하다가 1887년에 불하받았다. 미쓰비시는 해운, 석탄, 조선으로 수익을 올리면서 미쓰비시재벌로 성장했다.



미쓰비시조선소(엽서)





미쓰비시조선소 제3도크(엽서)

1896년에 제2도크, 1905년에 제3도크를 만들었고 1909년에는 영국에서 자이언트 캔틸레버 크레인을 사들였다. 1934년에 미쓰비시중공업이 설립되자 미쓰비시중공업 나가사키조선소로 개칭되었다.

미쓰비시중공업은 조선과 항공기 생산을 담당하는 일본 최대의 군수기업이었으며 나가사키가 그 거점이었다. 일본이 침략전쟁을 확대하던 시기 미쓰비시 중공업 산하 병기, 제강, 조선, 전기 공장은 나가사키시 우라카미강가에 들어섰고, 조선소의 큰 공장들은 나가사키항구에 연이어 있었다. 군함이나 어뢰는 미쓰비시 나가사키조선소에서, 군용기는 미쓰비시 나고야항공기회사에서, 전차 등은 미쓰비시 도쿄회사에서 제조했다. 미쓰비시중공업은 중국 동북지역에 미쓰비시 기기공장, 대만에 도크를 보유했다.

### 자원과 사람 모두 강제수탈

아시아태평양전쟁 당시 전쟁의 확대와 함께 미쓰비시는 아시아 각지에서 자원을 수탈하였으며 현지 민중을 혹사시켰다. 미쓰비시중공업 나가사키조선소에만 약 6,000여 명의 조선인이 강제동원되었다. 미쓰비시 나가사키병기, 미쓰비시 나가사키제강, 미쓰비시 나가사키전기, 지하공장건설, 항만수송 등에도 조선인들이 강제동원되었다.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이 투하되었을 때 강제동원된 수많은 조선인 노동자들이 피폭했다. 그러나 당시 조선인이 얼마나 희생되었는지 그 정확한 숫자는 지금도 밝혀지지 않았다. 다



이지스함을 수리하고 있는 나가사키조선소(2003)

만 나가사키 피폭자 30여만 명 중 10%가 조선인 희생자였다고 알려져 있다. 미쓰비시 나가사키조선소에는 연합군 포로도 동원되었다. 나가사키조선소 가까이에 있던 가와나미공업(川南工業)의 조선소에도 조선인과 연합군 포로가 동원되었다.

메이지시대부터 원폭이 투하된 날까지 나가사키는 무기 생산의 도시였다. 지금도 미쓰비시 나가사키조선소에서는 해상자위대의 이지스함을 비롯해 군수물자를 생산하고 있다.

### 1944년 나가사키조선소로 끌려간 김한수 할아버지



2010년 6월 김한수 할아버지의 중언회

독자인데다 취직을 하면 징용에 안 뽑힌다고 해서 소금만드는 연백전매지국에 취직했지만, 1944년 8월, 나가사키조선소에 강제동원되었다. 황해도 연백군에서 모인 200명 전원이 기차로 부산으로 끌려갔고, 연락선을 타고 시모노세키로 갔다. 숙소를 배정받고 군대처럼 정신교육과 군사훈련을 받았다. 일본인 소대장은 교육시간에 중일전쟁 때 중국에서 벌인 강간, 학살 얘기를 공공연히 떠들면서 징용자들에게 위압감을 주었다.

동과 아연 도금공장에서 일했다. 구리 파이프를 구부리는 일을 하다가 체인이 끊어지는 바람에 발가락이 부러



저 병원에 갔지만 주사 한 대만 놔주었다. 휴가증도 끊어주지 않아 발이 통통 부은 상태로 계속 일을 했다. 도금 실험실에 오다가 항공모함, 소형잠수함 제조 현장을 목격했다. 포탄에 맞아 구멍 뚫린 배를 고치다 보면, 선체 침몰을 막기 위해 산채로 수몰당한 병사들의 시신도 여럿 보았다. 나가사키 폭심지에서 3.2킬로미터 지점에서 작업중 피폭 당했지만 두꺼운 철판이 몸 전체를 덮어 다행히 목숨을 건졌다. 징용간 동료들 가운데 80%가 사망했을 것으로 추측된다.

- 일제강점하강제동원진상규명위원회, 『내 몸에 새겨진 8월』, 20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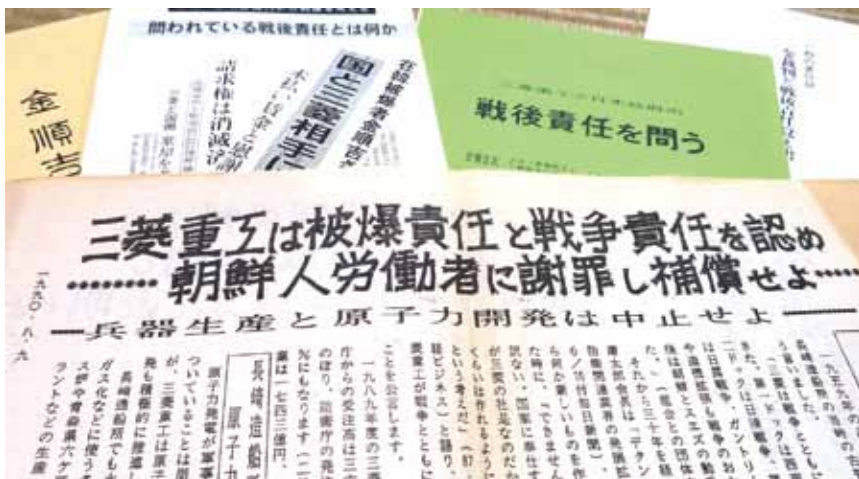
### 감시와 통제 속에 노동을 강요당한 김순길 할아버지

경상남도 생양통제조합 서기로 일하면서 가족을 부양하는 가장이었다. 1944년 12월 징용영장을 받아 징용을 피해 숨어 지냈다. 다음 해 1월 일본인 경찰과 조선인 고등계 형사에 붙잡혀 부산부청 총력과(總力課)와 미쓰비시 직원에게 넘겨졌다. 바로 다음날 부산에서 연락선에 태워져 미쓰비시 나가사키조선소로 끌려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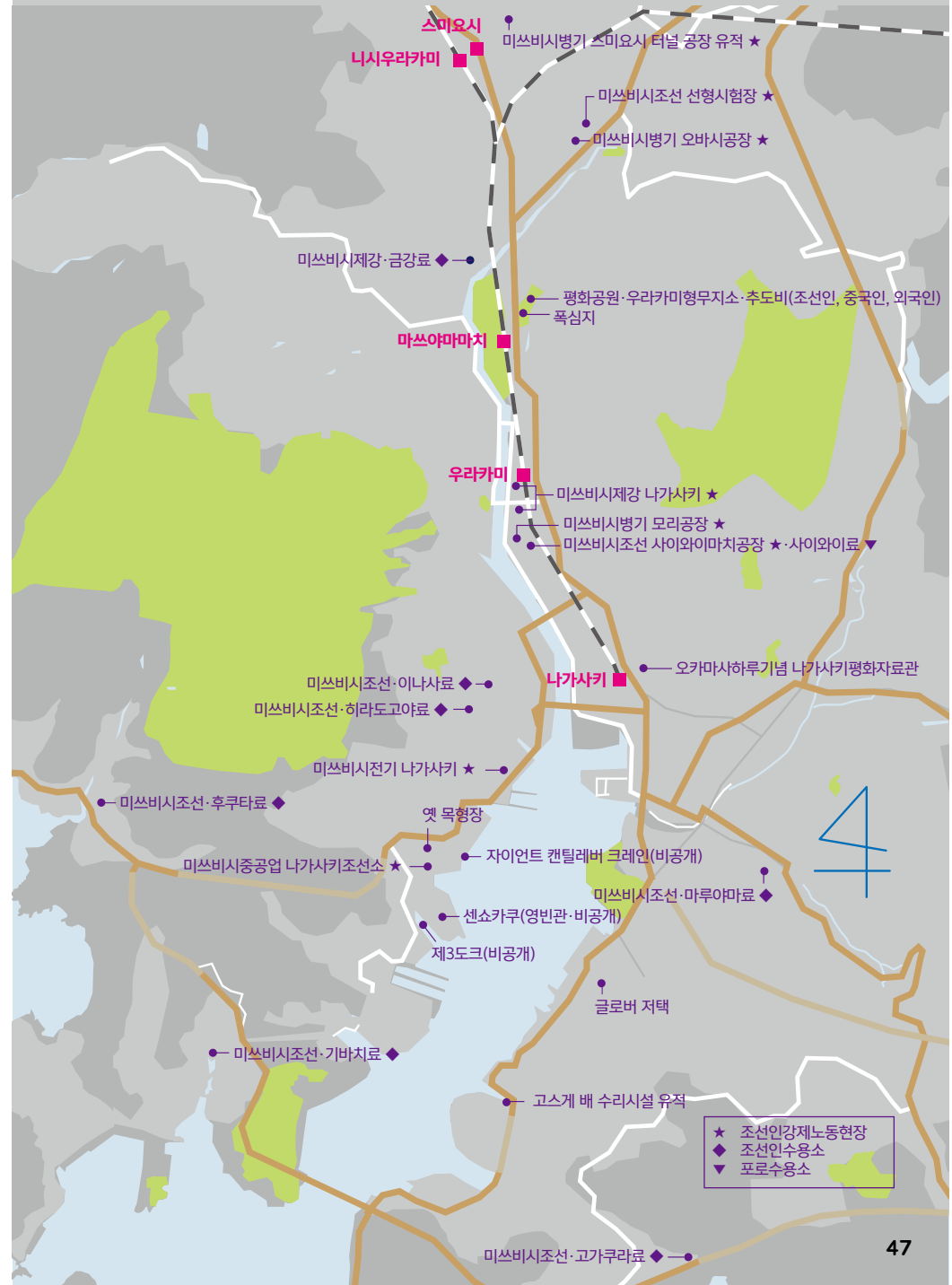
나가사키조선소에서 조선공작부(造船工作部) 보공계(輔工係) 수상유격반원으로 배치되었다. 숙소는 외부와 차단된 채 해군 보초가 순시를 했고, 헌병들이 늘 감시와 통제를 했다. 징용자들은 3개월 후부터 정해진 월급 외에도 가족수당, 개근수당, 잔업수당 등 여러 수당을 지급받도록 되어 있었지만, 퇴직적립금, 국민저축 등의 명목으로 공제되어 실제로는 거의 현금을 받지 못했다.

1945년 8월 9일 터널공작용 철재 운반 작업 중 피폭당했다. 지옥같은 나가사키를 보고 살아서 돌아갈 결심만 굳게 했다. 동료들과 나가사키를 탈출하여 귀국했다.

- 김순길의 피해배상 청구소송 1심 판결(일본 나가사키 지방재판소, 1997.12.2.)



### 나가사키조선소 관련 시설과 주변 지도



## 관련시설 안내



### 오카 마사하루 기념 나가사키평화박물관

1995년 일본의 전쟁책임과 가해의 역사를 고발하는데 평생을 바친 고 오카 마사하루(岡正治)의 유지를 계승하고, 일본의 가해 역사를 사실에 근거해서 호소하고자 나가사키 시민들이 건립한 박물관



9-4 Nishizakamachi Nagasaki-shi, Nagasaki-ken **교통** JR 나가사키역에서 도보 5분 **관람시간** 9:00~17:00 **휴관** 매주 월요일, 연말연시 **입장료** 어른 250엔 고등학생 이하 150엔 유아 무료



### 미쓰비시병기 스미요시 터널 공장 유적

아시아-태평양전쟁 말기에 건설된 미쓰비시중공업 나가사키 병기제작소의 소개(疏開) 공장. 나가사키시는 시민의 요구를 받아들여, “거주자의 다수는 조선인노동자였다. 그 중에는 강제로 동원된 사람도 있으며, 터널 뚫는 공사에서 가혹한 노동을 하였다”라고 쓴 안내판을 설치했다.



**《動員された人々》**  
記録や当時を知る人の証によると、当時の兵隊には、軍需工場が多数あり、学徒、徴兵、徴用工等が動員されて各地で働いていました。  
トンネル工場では軍の管轄下で兵器(兵器)生産に關わる作業が行われており、その作業に動員された人達が従事していました。  
トンネル工場周辺には工場として動員された人達のための寮が建てられていました。また、土木工事をする人達等のための娯楽場がいくつかあり、その娯楽場の多くは朝鮮人労働者でした。  
その中には、強制的に動員された者もあり、トンネルの掘削工事で過酷な労働に従事していました。彼らは3交代で、掘削後のトンネル内での掘削作業や、掘削により掘出される土や石をトラックで搬出したリトラックに積み込めるような屋外作業を主に行っていたと書かれています。



**Malicious Workers**  
According to records and those with knowledge of the period, there were a number of military factories, construction sites in Nagasaki at that time. Students, recruits, and drafted workers were dispatched and worked in various places in the city.  
In the Sumiyoshi Tunnel, workers related to the manufacture of armaments were dispatched and worked in the tunnel. Around the tunnel construction site, dormitories were set up for those involved in work in the factory. There were also some temporary quarters for construction workers. Many of the residents of these quarters were Korean.  
In the vicinity of the factory, there were also some leisure facilities, and they were used to help workers relax after working in the tunnel.  
They worked in three shifts, working away from the tunnel, and some were involved in carrying earth and stones out of the tunnel. In the open air, they were required to load and unload trucks with earth and stones.  
Among them, there were those who were forcibly mobilized, and they worked in the tunnel under harsh conditions. They worked in three shifts, working away from the tunnel, and some were involved in carrying earth and stones out of the tunnel. In the open air, they were required to load and unload trucks with earth and stones.  
Among them, there were those who were forcibly mobilized, and they worked in the tunnel under harsh conditions.

18 Sumiyoshimachi, Nagasaki-shi, Nagasaki-ken **교통** JR 나가사키역 앞에서 전철을 타고 스미요시(住吉) 정류장에서 하차, 도보 5분 **관람시간** 자유 **입장료** 무료



### 고스게 배 수리시설 유적

1869년 사쓰마번과 스코틀랜드 출신 글로버가 건설한 선박 수리 시설. 1887년 미쓰비시가 매수, 1953년 폐쇄.



5 Kosuge-cho, Nagasaki-shi, Nagasaki-ken **교통** JR 나가사키역 앞에서 나가사키버스를 타고 고스게마치 정류장에서 하차, 도보 1분 **관람시간** 주말 및 공휴일, 10:00~16:00 **입장료** 무료 **✓해설사 상주**





## 평화공원

원자폭탄 낙하 중심지와 그 주변, 나가사키형무소 우라카미형무지소(浦上刑務支所) 유적지에 세워진 공원. 1979년 '나가사키 재일조선인의 인권을 지키는 모임'이 건립한 조선인피폭자추도비, 1981년에 건립된 외국인전쟁희생자추도비(핵폐기인류부전의 비), 2008년에 세워진 중국인원폭희생자추도비 등이 있다.



9 Matsuyamamachi, Nagasaki-shi, Nagasaki-ken **교통** JR 나가사키역 앞에서 전철을 타고 마쓰야마초(松山町) 정류장에서 하차, 도보 3분 **관람시간** 자유 **입장료** 무료



## 미쓰비시조선소 옛 목형장

1898년 주물제품의 수요 증가에 따라 건설. 1985년 나가사키조선소 사료관으로 재개장, 일반에 공개  
동력공작기계와 거대한 엔진, 터빈의 실물, 사진 패널이 약 900점 전시되어 있다.



1-1 Akunouramachi, Nagasaki-shi, Nagasaki-ken **교통** 전차 예약 후 JR 나가사키역 앞에서 사료관 전용 버스로 이동(하루 6번 운행) **관람시간** 9:00~16:30 **휴관** 매월 둘째 토요일, 연말연시 **입장료** 어른 800엔 초·중학생 400엔 **예약전화** 095-828-4134(미쓰비시중공업 나가사키조선소 사료관)



## 옛 글로버 저택

1863년에 건설된 글로버의 주택. 글로버는 무기수출로 돈을 번 무역상. 나가사키조선소를 조망할 수 있는 언덕에 위치하고 있다. 1939년 전함 '무사시'를 건조하던 미쓰비시중공업이 매수, 1957년 나가사키시에 기부했다.



8-1 Minamiyamatemachi Nagasaki-shi, Nagasaki-ken **교통** JR 나가사키역 앞에서 전철을 타고 오우라텐슈도시타(大浦天主堂下) 정류장에서 하차, 도보 8분 **관람시간** 8:00~18:00(계절에 따른 변동 있음. 마지막 입장은 문 닫기 20분 전까지) **휴관** 없음 **입장료** 어른 610엔 고등학생 300엔 초·중학생 180엔



## 다카시마 · 하시마탄광: 미쓰비시광업의 '폭압의 광산'

### 죄수들이 채굴하기 시작한 다카시마

다카시마는 나가사키 항구에서 약 14.5km, 하시마는 그곳에서 4km 떨어져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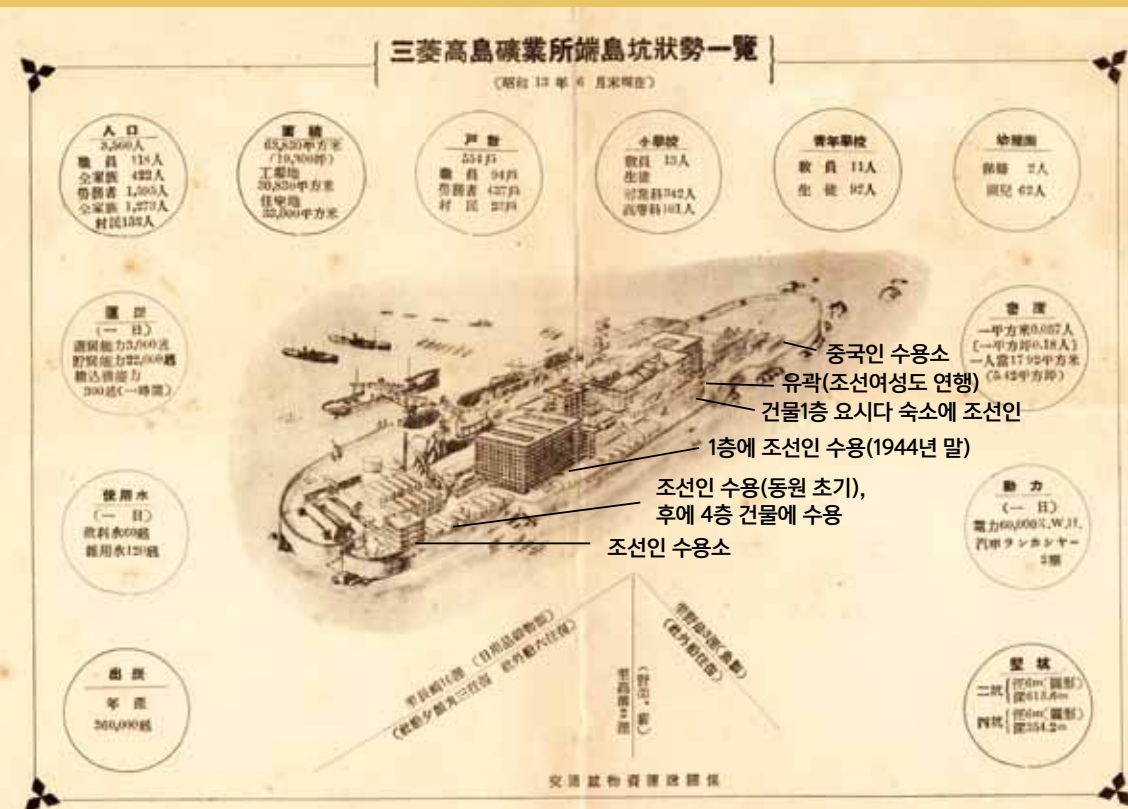
다카시마에서는 18세기 초부터 석탄이 채굴되었다. 본격적인 다카시마탄광 개발은 일본의 근대화와 함께 진행되었다. 1868년에는 사가번(佐賀藩)과 글로버상회가 경영했다. 글로버는 다카시마에 서양식 채탄기술을 도입했다. 그 기술은 치쿠호, 홋카이도에서도 이용되었다. 1874년 관영(官營)으로 바뀐 후 죄수 노동에 의한 채굴이 시작되었다. 미쓰비시는 1881년에 다카시마탄광을 인수했고 1890년에는 하시마를 소유했다.

### 폭압적 노무관리를 이어간 미쓰비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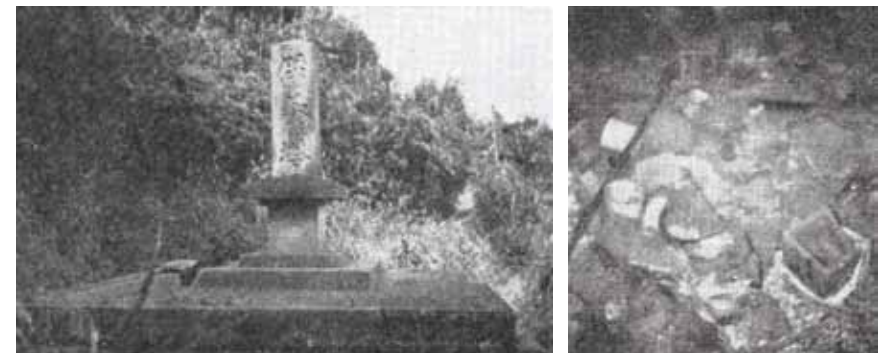
다카시마탄광에서는 많은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다. 미쓰비시가 경영하고 있던 1885년에 콜레라가 유행하여 561명이 숨졌다. 형편없는 위생 상태에다 갱부에 대한 폭행이나 사고도 많았다.

갱부들의 저항이 여러 차례 발생했다. 다카시마탄광은 '폭압의 상징'으로 널리 알려졌다. 저널리스트 마쓰오카 고이치(松岡好一)는 알선업자를 통해 다카시마탄광에 잠입해 1888년 6월 정교사(政教社) 기관지 『일본인』에 「다카시마탄광의 참상(高島炭鑛の慘狀)」을 썼다. 3,000명 탄광노동자에 대한 다카시마탄광의 폭압적 태도가 사회문제가 됐다.

폭력적인 노무관리 속에 노동자들의 저항의식이 생겨 1897년에는 다카시마와 하시마에서 파업이 일어났다. 1906년 다카시마탄광 가키세갱(蛸瀬坑) 사고 때는 307명이 숨졌다. 산업재해도 끊임없이 일어났다. 미쓰비시가 경영하기 시작한 뒤 패전까지 산업재해나 병으로 사망한 노동자가 1,000명이 넘었다.



미쓰비시 다카시마 광업소 하시마갱 상세일람(설명문 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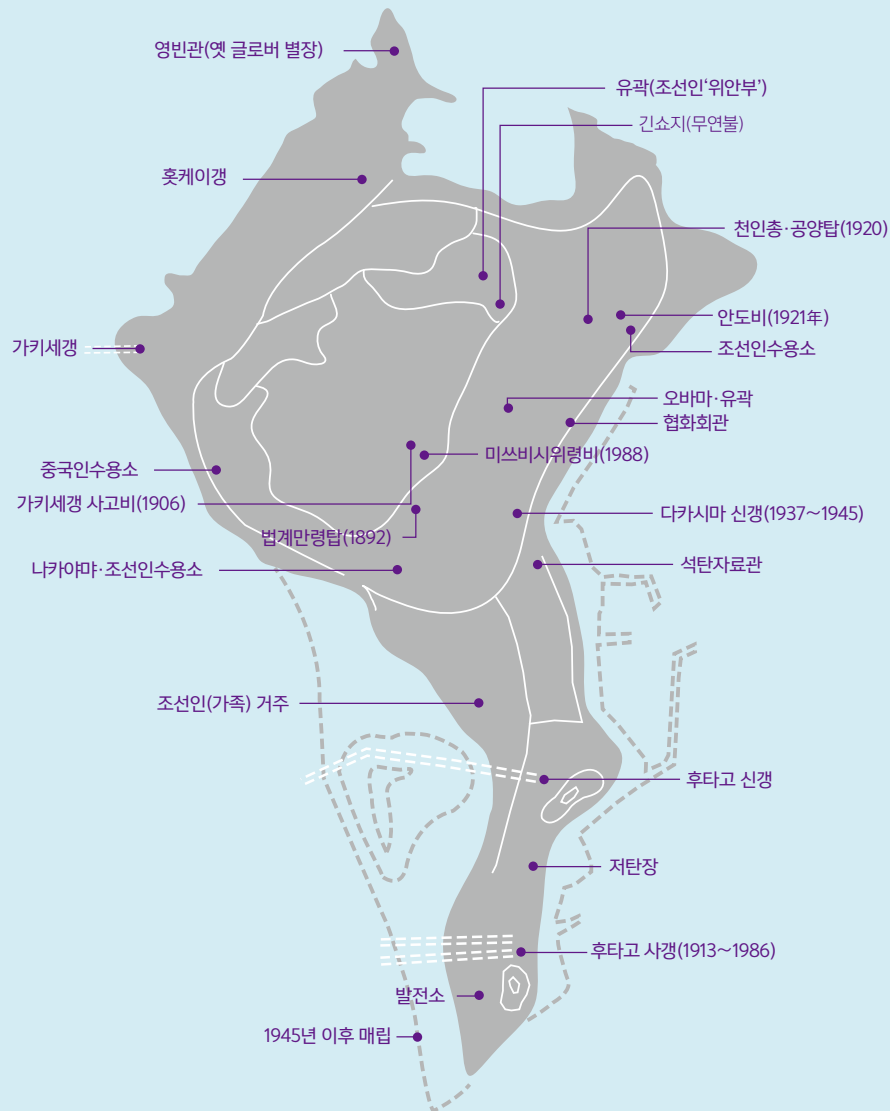


무연고 유골이 모셔진 묘지인 천인총(千人塚)의 공양탑과 그 내부(1920년 건립, 다카시마탄광노동조합 『30년사』, 1977). 하시마 폐산 후 하시마의 유골이 여기에 모아졌지만 다카시마도 폐산하자 납골당은 파괴되었고 유골은 긴소지(金松寺)에 모셔졌다. 조선인 유골도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 다카시마 배치도

4



하시마와 나카노시마, 다카시마(2017.9.촬영). 하시마는 동서 약 160미터, 남북 약 480미터, 둘레 1.2킬로미터에 지나지 않는 작은 섬이다.

### 저임금 노동력을 찾아 식민지로

미쓰비시 다카시마 탄광은 노동자가 부족하자 일본 각지에서 모집을 시작했다. 1917년 9월 21일에 조선에서도 모집 인가를 받아 약 150명을 다카시마탄광으로 데려갔다. 조선에서 계속 모집하기 위해 미쓰비시는 조선 현지에 모집인을 배치하기도 했다.

다카시마 탄광에서 조선인 사상자도 늘어갔다. 1918년 5월 후타고갱(二子坑) 가스폭발사고에서는 조선인 2명이 부상당했다. 가키세갱에서는 1919년 2월에 추락사, 12월에는 낙반사고도 일어났다.



1906년 가키세갱 이재자(罹災者) 초혼탑(『30년사』, 1977)



다카시마 가키세갱 전경(엽서)



## 하시마 배치도(1945년 경)



## 고층아파트가 들어선 군함도

하시마는 군함처럼 보인다고 하여 일명 '군함도'라고 불린다. 하시마 전체가 탄광으로 바다 속 곳곳으로 갱도가 펼쳐져 있다. 하시마 채굴은 근대 이후 시작되었고 1887년 사가번이 제1 수직갱을 파기 시작했다. 그 뒤 1890년부터 미쓰비시가 탄광 경영을 맡았다. 하시마는 1895년에 제2 수직갱, 1896년에 제3 수직갱, 1925년에 제4 수직갱으로 확대되었다. 하시마의 석탄은 아하타제철소의 제철용 원료탄으로도 사용되었다.

탄광 시설 확충과 함께 매립과 해안 방파제 공사가 진행되었다. 탄광노동자용 주거 시설이 건설되었으며 1916년 이후 철근콘크리트로 만든 9층, 7층 등의 고층 아파트가 만들어졌다. 기상이 악화되면 파도가 9층까지 올라갔다. 인구가 가장 많았던 1960년에는 이 작은 섬에 5,3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살았다.



하시마갱 조감도 (1938년 경)



## 죽어야 벗어날 수 있는 지옥섬

1939년부터 다카시마탄광(다카시마·하시마)에는 4,000명 정도의 조선인이 강제 동원되었다. 강제동원된 조선인들에게 이곳은 쇠창살 없는 감옥이자 공포의 노동 현장이었다. 부둣가에 남아 있는 문은 '지옥문'이라고 불렸으며 섬을 둘러싸고 있는 높은 제방은 도망 방지 역할을 했다. 탈출은 어려웠고 끌려간 이들에게 그곳은 '지옥섬'이었다.

하시마에 강제동원된 조선인들은 북향 4층 건물 등에 수용되었다. 1939년부터 1945년에 걸쳐 하시마에는 1,000명이 넘는 조선인들이 동원된 것으로 추정된다. 화장(火葬) 관련문서로 확인된 사망자는 50명 정도이다. 사망자 가운데 절반 이상이 사고사였다. 사망원인으로는 매물에 의한 질식, 압사, 외상사 등이 있고 익사도 있었다.

동원된 조선인들은 열악한 노동조건과 폭력 속에서 사투의 나날을 보내야 했다. 강제동원 생존자는 "너무 힘들어 섬을 나가려고 신체 절단까지 생각했다."고 증언했다. 1945년 8월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이 투하된 후, 나가사키 시내의 복구 작업에 투입되어 피폭을 당한 조선인들도 있다.

## 1943년 전라북도 김제군에서 하시마로 끌려온 윤춘기 할아버지

병원 뒤 건물에 배치되었다. 임금의 3분의 1은 강제 저금되었고, 3분의 1은 고향에 송금한다고 했지만 귀국해 보니 송금이 전혀 안 되었다. 식사는 외국 쌀로 지은 밥과 국뿐이었다. 밥에 주먹 정도 크기의 감자가 들어 있었기 때문에 밥은 겨우 세 숟가락 분량 밖에 되지 않았다.

낮은 천정 아래에서 1일 3교대로 일했고, 하루에 탄차 10대 이상을 캐내야 했다. 1945년 8월 15일 일본 패전 후 징용자들끼리 돈을 모아 배를 얻어 타고 마산에 도착할 수 있었다.

- 『백만 명의 신세타령』, 1999



조선인이 수용된 4층 건물



조선인이 수용된 4층 건물의 지하

## 14세에 하시마에 강제동원된 최장섭 할아버지

1943년 전라북도 익산에서 하시마로 강제동원되었다. 군수가 '왜 이런 어린아이를 데려온 것인가'라고 직원을 호되게 야단쳤지만, '인원수를 채우기 위해서'라며 다음 날 기차로 부산까지 끌고 갔다. 하시마가 어떤 곳인지 설명도 없었고, 단지 좋은 곳으로 간다고 속이는 등 갖은 수단으로 도망을 막으며 연행했다.

최장섭 할아버지는 9층 건물 지하에 배치되었다. 하라다 부대 제2중대에 소속되어 채탄현장에서 강제노동을 했다. 도주해서 잡히면 고무 튜브로 피부가 벗겨질 정도로 맞고 고문을 당했다. 집단 저항을 일으킬 만한 여유도 없었고, 감옥에 갇힌 것이나 다름없었다. 원폭투하 후 8월 18일 경에 청소를 하러 나가사키 시내에 갔을 때, '인간 지옥이 여기구나'라고 생각했다.

- 나가사키재일조선인의 인권을 지키는 모임, 『(개정증보판)군함도에 귀를 기울이면』, 2016



하시마에 강제동원된 최장섭 할아버지(2016.7.)

## 기준에도 맞지 않는 세계유산

다카시마탄광에서는 다카시마와 하시마 두 섬이 '일본의 메이지 산업혁명 유산'의 구성 자산이다. 그런데 다카시마의 탄광 관련 건조물은 폐갱 후 철거되었다. 하시마의 건조물은 대부분 1910년 이후에 지어진 것이다.

'산업혁명 유산' 시기를 1910년까지로 제한했기 때문에 다카시마에서는 홋케이세이갱(北溪井坑) 터, 하시마에서는 메이지시 수직갱(竪坑) 터와 해안 방파제 유구(遺構)만 산업유산 시설에 해당한다. 다카시마도 하시마도 섬 전체가 '산업혁명 유산'이 아니라는 뜻이다. 그런데도 현재 '일본의 메이지 산업혁명 유산' 홈페이지에서는 하시마 전체가 산업유산인 양 소개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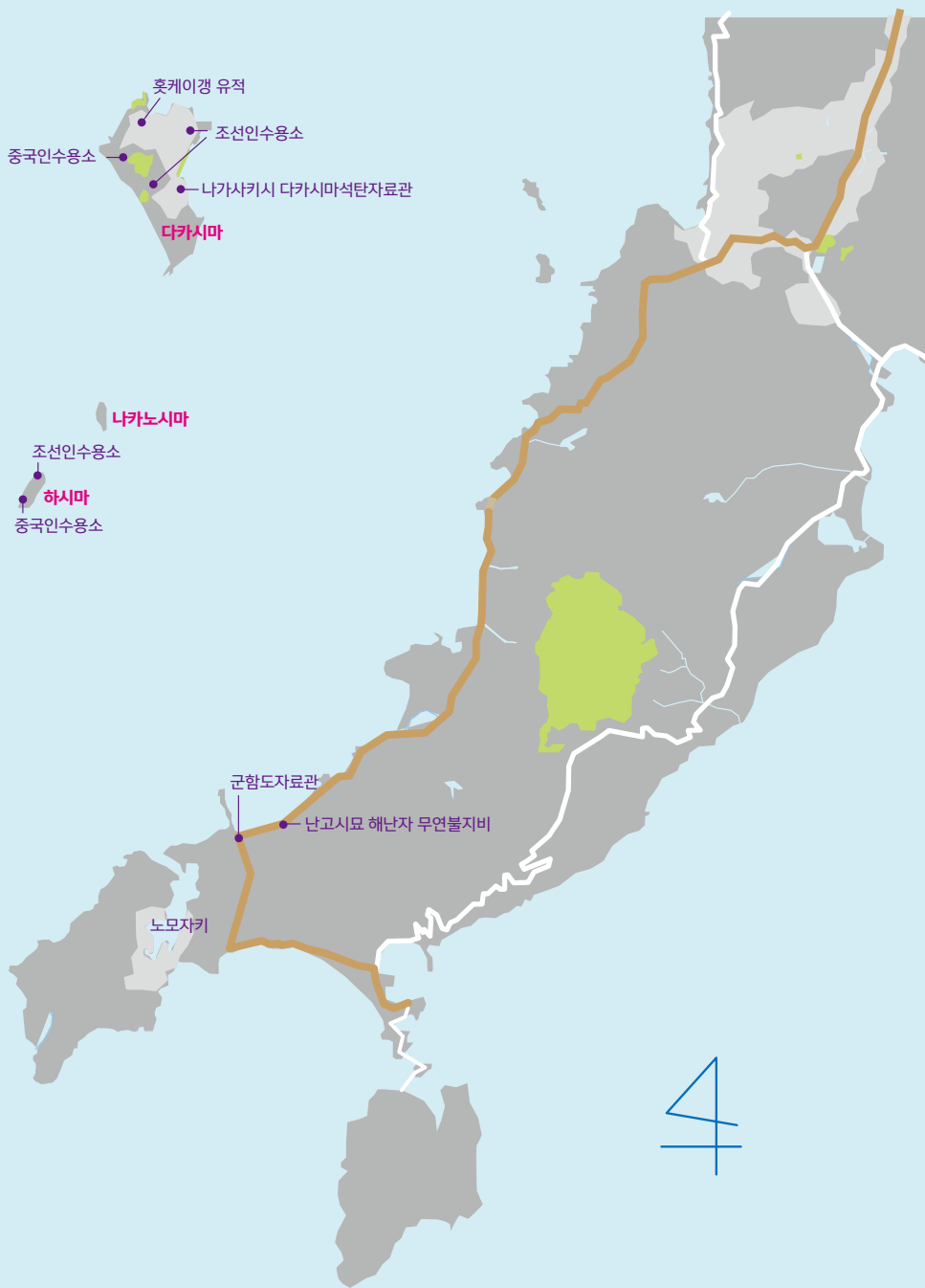
1970년대 다카시마 홋케이세이갱 유적 (『30년사』, 1977)



하시마 해안 방파제(2017.9. 촬영)



## 다카시마 · 하시마 관련 시설 지도



## 관련시설 안내



## 다카시마탄광

1869년에 개발이 시작된 일본 최초 증기기관에 의한 수직갱(훗케이갱)이 있었다. 1881년 미쓰비시가 사들였고, 1986년 폐쇄.



Takashimamachi, Nagasaki-shi 교통 나가사  
키 항에서 고속선박으로 약 35분 혹은 이오지  
마(伊王島) 항에서 고속선박으로 약 12분 입장  
료 무료



나가사키시 다카시마석탄자료관



석탄자료를 보존·전시하는 자료관, 미쓰비시다카시마탄광노동조합 사무소를 정비하여 1988년 개관. 다카시마탄광의 역사를 전시. 노동조합 깃발도 있다.

2706-8 Takashimamachi, Nagasaki-shi 교통 다카시마항에서 도보로 2분 개관시간  
오전9시~오후5시 휴관 연말연시 입장료 무료





## 하시마탄광

1887년 사가번이 제1 수직갱 개발을 시작했고, 1890년 미쓰비시가 소유했다. 1974년에 폐쇄, 2009년부터 일반에 공개되었다. 현재 중국인수용소 유적 관람 가능



Hashima, Takashimamachi, Nagasaki-shi **교통** 상륙투어 신청 필수. 코스, 운행 일정, 요금은 각 선박회사에 따라 다름. **입장료** 어른 300엔 초등학생 150엔



## 군함도자료관, 난고시묘 해난자 무연불지비(南越名海難者無縁佛之碑)

2003년 '노모자키초(野母埼町) 향토자료관' 일부를 이용해 개관. 하시마탄광의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계기로 2016년 현재 위치로 이전하여 재개장했고, 나가사키시 운영으로 바뀜. 군함도자료관에서 나가사키역 방면으로 해안에 따라 10분 정도 걸어가면 하시마에서 표류해 온 주검을 매장해 세운 추도비 난고시묘 해난자 무연불지비가 있다. 1985년 '나가사키 재일조선인의 인권을 지키는 모임'이 발굴, 유골을 확인했다.



562 Nomomachi Nagasaki-shi **교통** JR 나가사키역 앞에서 나가사키버스를 타고 60분, 운도코엔마에(運動公園前) 정류장에서 하차, 바로 앞 **관람시간** 9:00~17:00 **휴관** 연말연시 **입장료** 어른 200엔 초·중학생 100엔



## 미이케탄광 : 미쓰이 재벌의 기반, 강제노동으로 성장한 일본 최대의 탄광



### 죄수노동으로 성장한 미이케탄광

규슈는 홋카이도와 함께 탄광이 많은 지역이다. 미쓰이광산이 운영한 미이케탄광은 일본 최대의 탄광이었다. 일본 정부는 미이케탄광에서 사업을 시작할 때 죄수를 투입하여 채굴했다. 미쓰이물산은 미이케의 석탄을 팔아 수익을 올렸다. 미쓰이는 1889년 정부로부터 미이케탄광을 인수하여 운영했다.



미이케 탄광 전용 감옥 슈지칸(集治監) 유적 (2017.9. 촬영)

미이케탄광은 1873년부터 석탄운반에 죄수들을 강제 노동시켰다. 1883년에는 오우라갱(大浦坑)에서 일하고 있던 후쿠오카·나가사키·구마모토에서 온 죄수들이 처우개선을 요구하며 '폭동'을 일으켰다. 탄광 측은 죄수들이 장부를 불태운 연기가 갱내에 가득차자 일반 갱부와 죄수를 남긴 채 입구를 봉쇄했다. 같은 해 미이케탄광 전용 감옥이 설치되었고, 죄수들은 노예와 같은 취급을 받았다. 죄수노동은 1931년까지 계속되었으며 사망자 수는 2,400명이 넘었다.

미쓰이재벌은 무역, 은행, 광업, 조선, 철도 등 여러 산업부문에서 사업을 전개하여 일본 최대 재벌로 성장했다. 정부 정책에 적극 협조한 미쓰이재벌은 전쟁에서 수익을 올렸다. 미이케탄광을 중심으로 오무타(大牟田) 지역에는 석탄·화학 콤비나트가 형성되었다. 미이케탄광은 전쟁 당시 1년에 300만 톤이 넘는 석탄을 산출하는 일본 최대의 탄광이었다. 주요 광구는 만다갱(万田坑), 미야우라갱(宮浦坑), 요쓰야마갱(四山坑), 미카와갱(三川坑) 등이다.



오무타시에 있는 해탈탑과 합장비(미이케탄광 죄수들의 추도비)

## 3 잇따른 노동자들의 저항



미이케탄광 만다갱(엽서)



요쓰야마갱(엽서)

20세기에 들어서자 미이케탄광에서는 죄수보다 일반 노동자가 늘었다. 제1차 세계대전을 거친 후 노동자들의 권리의식도 높아졌다. 1918년 쌀소동 당시 미이케탄광 노동자들은 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파업했다. 만다갱을 중심으로 파업이 확대되자 군대가 출동, 탄압했다. 1920년에 미쓰이자본은 노사협조라는 명분으로 공애조합(共愛組合)을 만들어 노동자들을 회유했다.

1924년 6월 노동자들은 미이케제작소, 미이케염료, 요쓰야마갱, 만다갱, 미야노우라갱 등에서 잇따라 파업단을 조직해 일어섰다. 파업단은 임금 30% 인상, 퇴직 수당 1년에 30일 지급, 공애조합 철폐, 산업재해자에게 급여

지급, 장애·사망 수당 지급 등을 요구했다. 당시 미이케에는 노동자 19,000명이 있었는데 그 중 6,800명이 파업에 참여했다. 미쓰이의 석탄화학으로 인한 독연(毒煙), 오염수 등 환경오염도 문제가 되었다.

미쓰이재벌은 이 파업을 진압한 뒤 노동자의 사상조사, 정신교육, 신분격차 확대 등을 감행하여 노동자에 대한 지배를 강화했다. 전시체제가 강화된 1940년에는 미이케에서 광산 산업보국회를 결성하여 공애조합을 해산시켰다. 이렇게 '산업보국'을 강조하는 상황에서 조선인이 강제동원 되었다.

### 산업보국 전선으로! 강제동원된 조선인

탄광은 노동 강도가 높고 사망률도 가장 높은 작업장이었다. 1939~1945년 일본 본토에 끌려간 조선인의 약 40%가 탄광에 배치되었다. 미이케탄광에 강제동원된 조선인은 9,000명이 넘는다. 미이케탄광은 수많은 조선인, 중국인, 연합군 포로가 강제동원된 곳으로도 유명하다.

미이케탄광 인사담당자는 조선에서 “노무자들을 데리고 왔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잡아온 것이다. 가는 곳마다 지역 면장, 일본 헌병 등 힘 있는 사람들에게 돈과 선물을 건네고 협조를 받았다. 시골 마을에 낮에 가면 남자들은 모두 도망가고 없었기 때문에 밤에 갔다. 길에서 지나가는 조선인을 잡아 트럭에 싣기도 했다.”고 밝혔다.

강제 노동 현장에서 말을 잘 듣지 않은 조선인 노동자들은 죄수, 노예와 다름없는 취급을 받았다. 무릎 뒤에 대나무를 끼워 꿰어앉히거나 벨트로 때리고, 물을 마시게 한 뒤 배를 때리는 등의 잔인한 폭력을 가했다. 일상적인 욕설과 폭력, 차별 속에서 사고도 잦아 도주하는 사람이 속출했다.

미이케 관련 회사인 미이케염료, 전기화학공업 오무타공장, 도요고압공업(東洋高圧工業) 오무타공업소 등에도 조선인이 동원되었다. 전기화학공업 오무타공장에는 연합군 포로도 동원되었다.



미이케항 전경(엽서)

### 미이케탄광에서 가혹한 노동을 강요받은 이종필 할아버지

1943년 충청북도 괴산에서 미이케 미쓰이탄광에 연행되어 요쓰야마갱 조선인 기숙사에 배치되었다. 승강기로 500미터 정도 지하로 내려가 거기서부터 갱도로 들어가서 석탄을 파내는 일을 했다. 하루에 탄차 15대 분량만큼 탄을 캐야 했다. 하루에 10~12시간 일하지 않으면 달성할 수 없는 양이었다.

안전설비가 제대로 갖추어 있지 않아 이틀에 1명꼴로 부상자가 생겼다. 부상이나 병으로 쉬면 ‘근로정신이 부족하다’라고 고함을 치고, 3분의 1로 줄어든 식사를 배식 받았다. 한





## 관련시설 안내



### 미이케 슈지칸(集治監) 유적

1883년 미이케탄광의 노동력 확보를 위해 일본 정부가 설치한 감옥. 미이케 감옥, 미이케 형무소로 개칭된 후 1931년에 폐쇄. 현재 미이케공업고등학교에 벽돌로 만든 외벽과 돌담만 남아 있다. 1996년 후쿠오카현 지정유형문화재로 지정



4 Chome-77 Jōkanmachi Ōmuta-shi **교통** JR 오무타역에서 도보 20분 **관람방법** 미이케공업고등학교 밖에서는 자유롭게 견학할 수 있지만 부지 내에 들어갈 경우에는 학교 사무실에 문의해야 함.



### 마와타리 기념비(마와타리 제일공원)

강제동원 조선인의 수용시설인 미쓰이광산 마와타리(馬渡) 사택이 해체되고 마와타리 제일공원으로 정비된 후 1997년 사택을 보존하기 위해 노력하던 시민들의 요청으로 설치된 기념비.



39-14 Mawatarimachi, Omuta, Fukuoka Prefecture **교통** JR 오무타역 앞에서 니시테쓰(西鉄) 버스를 타고 가사하라(笠原) 정류장에서 하차, 도보 5분 **관람시간** 자유 **입장료** 무료



### 오무타시 석탄산업과학관



1995년에 개관한 에너지자원에 관한 과학관. 고향을 그리워하는 조선인의 마음이 담긴 마와타리 사택의 벽 낙서(1989년 발견)가 보관, 전시되어 있다.

6-23 Misakimachi Ōmuta-shi **교통** JR 오무타역 서쪽 출구에서 도보 약 23분 **관람시간** 9:30~17:00 **휴관** 매월 마지막 월요일, 연말연시 **입장료** 어른 410엔 중학생 이하 200엔 3살 이하 무료



### 미쓰이 미이케탄광 미야우라갱 중국인 순직자 위령비

2013년, 오무타시의 미야우라 석탄기념공원 한 곳에 세워진 중국인 추도비. 일본중국우호협회 후쿠오카연합회 등이 건립. 비문에는 만다갱, 요쓰야마갱, 미야우라갱 등에 2,481명의 중국인이 연행되어 635명이 죽었다고 쓰여 있다.

미야우라갱에 574명이 연행되어 강제노동으로 44명이 죽었다고 씌어있다.



132-8 Nishimiyaumachi, Ōmuta-shi **교통** JR 오무타역에서 도보로 15분 **개원시간** 연중 **입장료** 무료



## 징용희생자위령비

제2차세계대전 중 미이케에 동원된 조선인을 추모하는 비. 1995년, '재일코리아오무타'가 건립. 오무타시, 미쓰이석탄공업, 미쓰이동압(東圧)화학, 전기화학공업도 협력했다.



Amagi, Ōmura-shi 교통 히가시아마지역에서 도보로 10분 **개원시간** 연중 **입장료** 무료



## 미이케탄광 만다갱

1902년에 채굴이 시작된 미이케탄광 주력 갱구 가운데 하나. 1951년 채탄 중지.



200-2 Haramanda Arao-shi 교통 JR 아라오역(荒尾駅) 앞에서 산코(産交)버스를 타고 만다코마에(万田坑前) 정류장에서 하차, 도보 3분 **관람시간** 9:30~17:00(입장은 16:30까지) **휴관** 매주 월요일, 연말연시 **입장료** 어른 410엔 고등학생 300엔 초·중 200엔 **해설사** 상주, 정시 가이드(일 6회)



## 미이케탄광 미카와갱



1937년부터 사갱(斜坑, 비탈지게 판 갱도) 굴착 시작, 1997년 폐쇄. 노동쟁의와 탄진 폭발사고(1963) 등으로 유명하다. 바로 옆에 미쓰이 재벌의 영빈관 '미쓰이항 구락부'(1908년 개업)가 있다. 오무타시 쇼와마치(昭和町) 엔메이공원(延命公園)에는 1963년 탄진폭발사고 위령비가 있다.

Nishiminatomachi Ōmura-shi 교통 JR 오무타역 앞에서 니시테쓰버스를 타고 미카와마치 잇초메 정류장에서 하차, 도보 3분 **관람시간** 주말과 공휴일의 9:30~17:00(입장은 16:30까지) **입장료** 무료 **해설사** 상주



## 미이케 항(전망대)

1908년 석탄을 실어내기 위한 항으로 개항. 일본에서 유일하게 수위 조절이 가능한 갑문식 도크가 있다. 현재도 가동 중이므로 멀리서만 관람 가능. 전망대 외에 '미이케 항 아이아이 광장'에서도 관람 가능



Shinkōmachi, Ōmura-shi 교통 JR 오무타역 앞에서 니시테쓰(西鉄)버스를 타고 미카와마치 잇초메(三川町一丁目) 정류장에서 하차, 도보 8분 **관람시간** 9:30~17:00(입장은 16:30까지) **휴관** 매월 마지막 월요일 **입장료** 무료 **주말과 공휴일**에는 해설사가 상주





## 미이케탄광 미야노하라갱, 전용 철도 유적

1898년 미쓰이가 최초로 개발한 갱구. 미이케 슈지칸에 수용된 죄수에게 가혹한 노동을 강요한 곳으로도 유명하다. 별칭 '수라갱(修羅坑)'. 1905년에 부설된 미이케탄광 전용 철도 유적은 지금도 미야노하라갱(宮原坑)에서 만다갱, 미이케항 근처까지 남아 있으며 미야노하라갱에서도 관람할 수 있다.



1 Chome-86-3 Miyaharamachi Ōmuta-shi, Fukuoka-ken **교통** JR 오무타역 앞에서 니시테쓰(西鉄)버스를 타고 스에히로마치(末広町) 정류장에서 하차, 도보 10분 **관람시간** 9:30~17:00 **휴관** 매월 마지막 월요일 **입장료** 무료 ✓해설사 상주

# 4

## 세계유산에서 강제노동 역사를 전하는 의의





## 세계유산 속의 강제노동

유네스코 세계유산 가운데에는 강제노동이나 노예노동에 대해 알 수 있는 시설들이 많이 있다.

볼리비아 은광(銀鑛)의 도시 포토시(Potosi)는 스페인 지배에 의한 은광 경영과 선주민의 강제노동을 보여주고 있다. 영국의 항만도시 리버풀은 이민, 노예무역, 산업혁명 등의 역사를 담고 있다. 폴란드의 아우슈비츠수용소 옛터는 독일의 유대인 대량학살과 강제노동을 보여주는 곳이다.

독일의 루르 탄전에 있는 에센의 졸페라인(Zollverein)탄광 유산군은 150여 년에 걸친 중공업의 역사를 보여주는 곳이다. 졸페라인탄광에서는 전쟁 당시 폴란드·프랑스 등에서 동원된 사람들과 전쟁포로들이 강제노동을 당했다. 졸페라인은, 루르공업지대가 무기 생산의 중심으로 두 차례의 세계대전을 뒷받침했으며, 유대인과 외국인, 전쟁포로가 강제노동을 당한 현장이라는 것을 전시를 통해 보여주고 있다.

독일의 자르 탄전에 있는 뢰크링겐(Völklinger)제철소도 중공업의 역사를 보여주는 곳이다. 이곳에서는 제2차 세계대전 중에 7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강제노동을 당했다. 전쟁 말기에는 러시아, 폴란드, 유고슬라비아, 프랑스, 벨기에, 룩셈부르크 등에서 동원된 사람들이 강제노동한 역사도 전시되어 있다.



졸페라인탄광 유산군



졸페라인탄광 유산군 전시실 내부

대표적인 '부정적 유산'에서 볼 수 있듯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은 자민족의 자기찬미에 그치지 않고 있다. 자국의 산업화 역사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강제노동 등 '부정적 역사'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함께 표현함으로써 세계 인류가 공유할 보편적인 가치를 실현하고 있다. 산업화는 자본과 노동, 국제관계 등 다양한 측면을 포함하고 있고, 근대화, 산업화에 의한 강제노동과 인권침해 등 '부정적 역사' 또한 짚게 드러워져 있다.

산업유산은 밝은 면만 아니라 어두운 역사를 함께 밝힘으로써 국제적이고 보편적인 가치를 드러낼 수 있다. '일본의 메이지 산업혁명 유산'도 그렇게 할 때 비로소 역사유산으로서의 평가가 높아지고, 국제적인 공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 해결되지 않은 전후보상: 강제노동 피해자의 권리

일본의 식민지 지배로 토지를 빼앗긴 조선인은 일본의 탄광, 토목공사 현장, 공장 등에서 저임금으로 일했다. 침략전쟁이 확대되자 조선인 청년뿐 아니라 여성과 미성년 아동까지 강제동원되어 노동을 강요당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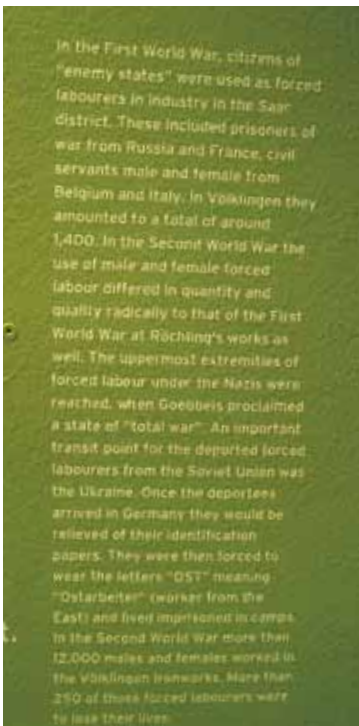
미쓰비시광업, 미쓰이광산, 일본제철, 미쓰비시중공업은 강제노동의 중심적인 기업이었다. 미쓰비시광업과 미쓰이광산 계열의 일본 각지 탄광·광산에 연행된 조선인은 15만 명이 넘는다. 9,000명이 넘는 중국인도 미쓰비시·미쓰이탄광에 동원되어 강제노동에 시달렸다. 한국과 중국 등 아시아의 강제노동 피해자들은 1990년대 이후 일본 정부와 기업의 사죄와 배상을 계속해서 요구해 왔다.

일본 시민과 법률가들도 피해자들의 호소에 응답하기 위해 일본에서 진행된 소송에 필요한 증거자료를 조사하거나 후원금을 모으고 홍보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했다. 매우 지체되긴 했으나 사법적 정의를 실현함으로써 식민지배와 침략전쟁이 남긴 강제노동이라는 아픈 상처를 치유하고자 노력한 것이다. 그러나 일본정부와 사법부는 강제노동 피해자와 시민들의 호소를 모두 거부했다. 침해당한 개인의 소중한 권리가 구제되지 않는 한 그 사회는 인권을 보장하는 민주주의 사회가 아니다. 강제노동 문제는 포기할 수 없는 인권의 문제이다.

강제노동 피해자들이 가지는 권리는 단순히 민사상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만의 문제가 아니다. 지금까지 국제사회에서 인정되어 온 반인도적인 범죄의 피해자로서 피해회복을 요구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 그것은 시간이 아무리 흘렀어도 보장받아야 하는 권리이며 원상회복은 불가능하더라도 이를 대신할 금전배상, 재발방지 보장은 물론, 진실을 기억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국제인권법의 중대한 침해와 국제인도주의법의 중대한 위



신일본제철주식회사 한국 법원 제소 기자회견(2005.2)



필클링겐 제철소와 강제노동에 관한 전시 패널

제1차 세계대전 중 “적국”의 시민들이 자르 지역의 산업에서 강제노동자로 일했다. 여기에는 러시아와 프랑스 출신 전쟁포로들과 벨기에, 이탈리아에서 온 남녀 공무원이 포함되었다. 필클링겐의 경우 강제노동자가 총 1,400명 가량 있었다. 제2차 세계대전 중에 남녀 강제노동의 사용은 제1차 세계대전의 경우와 근본적으로 질적, 양적으로 달랐고 뢰흘링 작업장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괴벨스가 “총력전” 상태를 선포했을 때 나치 지배 아래 강제노동은 극한의 최정점에 도달하였다. 소련에서 국외로 이송된 강제노동자들의 중요한 기착지는 우크라이나였다. 강제로 연행된 사람들이 독일에 도착하면 바로 신분증명서를 빼앗겼다. 그런 다음 이들은 “동부에서 온 노동자”를 뜻하는 “OST”라는 표찰을 달아야만 했고 수용소에 구금된 채로 살았다. 제2차 세계대전 중 12,000 이상의 남성과 여성들이 필클링겐 제철소에서 일하였다. 이들 강제노동자들 가운데 250명 이상이 생명을 잃었다.



반행위의 피해자를 위한 구제와 배상에 대한 권리에 관한 기본원칙과 지침', 유엔 총회 결의 제60/147호, 2005.12.16.).

100건에 가까운 전후보상 소송이 진행되었지만 원폭피해자 일부 소송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기각 당했다. 일본 정부는 충분한 진상조사도 하지 않았고, 배상도 1965년의 한일협정으로 '완전히 해결되었다'라는 입장을 고집하고 있다. 그렇지만 한일협정으로 일본의 침략 전쟁과 식민지 지배로 인한 피해자 개인에 대한 손해배상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

2012년 한국 대법원은 '일본의 국가 권력이 관여한 반인도적 불법 행위나 식민지 지배와 직결되는 불법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권이 청구권협정의 적용대상에 포함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청구권협정에 의해 개인의 청구권은 소멸되지 않았다는 판단을 내렸다. 강제동원을 포함하여 식민지 지배와 직결되는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의 권리를 인정한 것이다. 일본에 의한 배상이 충분하지 않으며 일본 기업에게 배상 책임이 있음이 명확해졌다.

한국의 강제노동 피해자들은 한국 내에서 미쓰비시중공업, 신일철주금, 후지코시(不二越) 등의 강제노동 관련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지방법원, 고등법원에서 승소하고 있으며 대법원에서의 승소도 예상된다(2017년 현재). 일본의 최고재판소도 2007년 개인 청구권은 남아있다고 판결한 바 있다. 일본 기업과 일본 정부는 여기에 응대해야 한다.

희생자의 유골 중 현지에 지금까지 방치되어 고향으로 돌아오지 못한 것도 있다. 아버지의 유품이라 할 수 있는 저금통장도 수 만개가 유초은행에 보관된 채 유족에게 전달되지 않고 있다. 그 수가 3만 8,000건에 이른다.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여전히 남아있다.



가이지마탄광(貝島炭坑) 유적지에서 강제동원된 조선인 행적조사와 추도제(2014.5.)

## 강제동원 역사의 기억과 계승 활동

일본 각지의 탄광, 광산, 항만, 군수공장에 많은 조선인들이 강제동원되어 희생을 당했다. 희생자를 추도하고, 그 역사를 교훈으로 삼기 위해 시민들은 함께 비석과 안내판을 세웠다. 규슈, 야마구치 지역의 산업유산 주변에도 많은 비석이 세워져 있다.

### 치쿠호 지역 탄광과 조선인 추도비

후쿠오카현 내륙의 치쿠호(筑豊)는 석탄 산업의 근거지이다. 전시기에는 조선인 15만 명이 끌려갔다. '일본의 메이지 산업혁명 유산'에서는 치쿠호 지역 탄광의 산업유산이 제외되었지만 야마모토 사쿠베(山本作兵衛)가 그린 탄광기록화가 유네스코기록유산에 등재되어 있다. 치쿠호 지역의 조선인 추도비에 대해서 살펴보자.

이즈카시 쇼지(庄司)에 있는 이즈카영원(飯塚霊園)에는 2000년에 세워진 무궁화당이 있다. 2004년에는 무궁화당 주변에 역사회랑이 만들어졌다. '재일 치쿠호 코리아 강제연행 희생자 납골식 추도비 건립 실행위원회'는 해방 후에도 방치되어 있던 유골을 수습하여 무궁화당을 건립했다. 이 실행위원회는 2004년부터 '무궁화당 우호친선 모임'으로 개칭하여 유골수습과 평화우호를 추진하고 있다. 무궁화당에 납골되어 있는 유골 일부가 미쓰비시 나마즈타(鯨田)탄광, 일철 후타세탄광, 히사쓰네(久恒)탄광에 동원된 조선인의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즈카시 야사카(微榮)에 있는 아소(麻生)기업 요시쿠마(吉隈)탄광 터에는 1985년에 재건된 덕향추모비(徳香追慕碑)가 있다. 1936년 요시쿠마탄광 사고 희생자를 추모하는 비석이다. 이 사고로 29명이 숨졌는데 그 가운데 25명이 조선인이었다. 1939년부터 1945년에 걸쳐 아소탄광에 연행된 조선인은 1만 명이 넘는다.

다가와시(田川市) 이타(伊田)에 있는 미쓰이 다가와탄광 터, 석탄기념공원에는 1988년에 세워진 한국인징용희생자위령비가 있다. 비문에는 강제연행·강제노동을 당하다 숨진



무궁화당 내부



이들을 추모하며, 다시는 이와 같은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겠다고 적혀 있다. 강제노동당한 중국인을 추모하는 '진혼비'도 2002년에 건립되었다. 다가와시 가와미야(川宮)에 있는 호코지(法光寺)에는 1975년에 세워진 조선인탄갱순직자(朝鮮人炭坑殉職者) 비석이 있다.

구라테군(鞍手郡) 고타케마치(小竹町)에는 1994년에 건립된 추도탑 '쇼간보다이(松岩菩提)'가 있다. 후루카와(古河) 샤카노(目尾)탄광 터에 있다. 비문에는 전시 하에 젊은이들이 강제연행되어 가혹한 노동을 했다는 역사를 기록하고 있다.

미야와카시(宮若市)에는 가이지마(貝島) 오노우라(大之浦)탄광이 있었다. 전시기에는 가이지마 오노우라로 1만 명이 넘는 조선인이 끌려갔다. 와카미야시 미야타(宮田)에 있는 센고쿠(千石)공원에는 1982년에 세워진 '복권(復権)'의 탑'이 있다. '복권'이란 모든 탄광노동자를 추도하여 손상당한 권리의 회복을 요구함과 동시에 연대와 존엄을 호소하는 것을 말한다.



쇼간보다이(추도탑)



마와타리 기념비



복권의 탑 (1982년 건립)

### 오무타와 나가사키 시민의 추모 활동

미이케탄광이 있는 후루오카현 오무타, 나가사키조선소가 있는 나가사키에도 조선인이 나 중국인을 추모하는 비가 있다. 조선인 수용소 터에 만든 오무타시 마와타리공원에는

1997년 조선인 강제동원을 기억하기 위한 마와타리기념비(馬渡記念碑)가 건립되었다. 오무타시 아미기공원(甘木公園)에도 조선인징용희생자추도비가 있다. 오무타 시민들은 탄광의 역사를 인권의 관점으로 배울 수 있는 가이드북을 일본어와 한국어로 만들었다.

나가사키시 평화공원에는 조선인 원폭희생자 추도비(1997), 중국인 원폭희생자 추도비(2008), 연합군 포로 희생자 추도비('해페기인류부전의 비', 1981)가 있다. 나가사키시가 스미요시(住吉) 터널 터에 설치한 안내판에는 조선인 강제동원의 역사가 명시되어 있다. 모두 피해자들과 시민의 힘과 요구로 실현된 것이다.

'일본의 메이지 산업혁명 유산'의 현지 안내에서는 이러한 추도비와 함께 피해자와 시민들의 활동도 해설하고 강제노동의 역사를 배울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오무타의 시민가이드북



중국인 원폭희생자 추도비



### 모든 희생자 이름을 새긴 추모비

아마구치현 우베(宇部)시 니시키와(西岐波) 해변 근처에 2013년 2월 일본 시민단체가 세운 추도비가 있다. 1942년 2월 3일 조세이(長生)탄광에서 일어난 수몰사고로 갯도에 갇혀 목숨을 잃은 183명의 희생자를 추도하기 위해 세운 것이다. 183명의 희생자 가운데 136

명이 조선인이었다.

모든 희생자 이름이 새겨진 비석의 추도문에는 ‘일본이 국책으로 석탄 증산을 강력하게 추진하였고, 희생된 조선인은 일본의 식민지 지배로 인해 토지와 재산을 잃게 된 사람들과 강제로 끌려온 사람들이었고, 그러한 역사를 반성하며 다시는 다른 민족을 짓밟는 포악한 권력의 출현을 용납하지 않도록 온 힘을 다할 것을 맹세’한다는 내용이 한국어와 일본어로 새겨져 있다.

야하타, 나가사키, 미이케에서도 희생자의 이름을 새기고 추도할 필요가 있다.



조세이탄광 희생자 추도비

### 역사와 정의의 위기를 극복하자! 강제노동의 역사를 인정하고 밝혀라!

무엇을, 어떻게 기억하고 계승해야 하는가. 유네스코의 정신 그것은 인간의 존엄을 실현하기 위한 이념 추구와 정의·자유·평화를 위한 교육, 여러 민족 간의 지적, 정신적 연대를 통한 국제평화와 인류공통의 복지의 실현을 지향하고 있다. 강제노동의 역사를 기억하고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일은 인간 존엄의 회복을 향한 문화와 평화의 국제활동이다.

‘일본의 메이지 산업혁명 유산’이 강제동원의 역사를 제대로 기억하고 계승함으로써 일본과 아시아, 나아가 세계인들과 ‘지적도덕적’ 연대를 강화하고, 아시아의 평화를 구축하는 기반이 되기를 우리는 바란다.

자료

한일시민단체공동성명서

## 메이지 일본 산업시설의 세계유산 등재 2년을 맞아 “강제노동 현장에 스며있는 피해자들의 피와 땀, 눈물의 역사를 기록하라!”

2년 전 우리는 ‘메이지 일본의 산업혁명 유산(23개 시설)’이라는 미명하에 아시아 침략과 전쟁의 역사를 의도적으로 삭제한 채 세계유산으로 등재시킨 일본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일본정부의 등재 시도는 강제연행·강제노동 피해자는 물론 유네스코 창립정신을 기만하는 행위였기 때문이다. 우리는 ‘메이지 일본의 산업혁명 유산’이 일본의 우경화에 이용되어서도 안 되며 반드시 관련 역사 전체가 반영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 네덜란드, 중국에서도 전쟁 포로와 노예노동을 기술했지 않은 세계유산의 등재를 반대했다.

이런 반대 여론에 따라 2015년 7월 5일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는 “전체 역사를 기술했다”는 권고사항을 포함하여 일본 산업혁명 유산의 ‘조건부’ 등재를 결정했다. 이에 일본 사토 구니 유네스코 대사는 국제기념유산협회의 권고를 진지하게 받아들여 “1940년대 자신의 의사에 반해 끌려 와 가혹한 조건 하에서 일할 것을 강요받은 많은 조선인 등이 있었다는 것, 또 2차 세계대전 중 일본 정부가 징용 정책을 실행했다는 사실”을 이해시키기 위해 ‘정보센터의 설치 등 희생자를 기억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임을 총회장에서 약속했다.

일본 정부는 후속 조치로서 2015년 7월, 일본 산업혁명 유산 등재를 주도했던 가토 고코를 내각관방 참모로 임명하고, 전쟁 중 한반도에서 동원된 ‘징용공’ 등에 관한 ‘최초의 실태 조사’를 시작했다. 이 조사결과를 토대로 일본 정부는 올해 12월 유네스코에 ‘해석 전략’을 보고할 예정이다. 우리는 실태 조사를 성실히 수행해 역사적 사실을 밝히는 보고가 공표되기를 바라며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몇 가지 소식들은 기대보다는 우려를 더 갖게 한다. 세계유산 등재와 관련해 아베 총리는 “일본이 서양 기술을 도입하면서 자력으로 사람을 육성하고 산업을 일으켜 산업국가 됐다” “해외의 과학기술과 자국의 전통기술을 융합하여 불과 50년 만에 산업화를 이룬

일본”이라 하여 ‘위대한 일본’론만 펼쳤다. 내각 관료들은 등재 결정 바로 다음 날부터 ‘강제 노역을 인정한 것이 아니다’라고 공식 부인했다. 일본 우익 언론도 ‘강제노동은 없었다’ ‘민족차별도 없었다’는 등 위험한 역사수정주의적 발언을 반복적으로 생산하고 있다. 올해 발표된 교과서 서술 지침에는 아베 정부의 이러한 인식이 그대로 반영되고 있음이 명백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강제노동의 실태가 제대로 ‘정보센터’에 반영될지 매우 회의적이다. 일본의 산업화 진전과 일본의 발전은 ‘기술’ 발전만으로 성취된 것이 아니다. 거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한 노동의 역사도 들어 있다. 뿐만 아니라 한반도 등 아시아에 대한 침략의 역사도 관계하고 있다. 조선인, 중국인, 그리고 제 2차대전 중 연합군의 포로노동도 있었다. 이처럼 빛과 그림자가 교차되어 새겨진 역사가 산업유산에 담겨 있다.

유네스코 현장 전문은 “정부의 정치적·경제적 조정에만 기초를 둔 평화는 세계 국민들의 일치되고 영속적이고 성실한 지지를 확보할 수 있는 평화가 아니다. 따라서 평화를 잃지 않기 위해서는 인류의 지적·도덕적 연대 위에 평화를 건설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했다. ‘메이지 일본의 산업혁명 유산’의 세계문화유산 등재가 일본과 한국, 나아가 아시아 사람들 사이의 ‘지적·도덕적 연대’를 강화하는 계기가 되어, 아시아의 평화를 구축해가는 단계가 될 것을 우리들은 바란다.

이번 일본 정부의 조사에서는 강제노동과 포로노동 등의 그림자와 ‘희생자를 기억’하기 위한 역사적 사실이 제대로 다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유네스코 ICOMOS가 권고한 ‘역사의 전모’를 밝히는 일에 일본정부가 성실하게 임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여전히 미쓰비시,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피해보상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피해자들의 땀, 눈물, 피의 기록은 온전히 세계인들에게 알려져야 할 역사이다. 우리는 그러한 역사가 제대로 알려질 수 있는 노력이 이행될 때까지 감시 활동을 그치지 않을 것이다.

2017년 7월 5일

**한국** 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 근로정신대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민족문제연구소, 야스쿠니반대공동행동 한국위원회, 포럼 진실과 정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과거사청산위원회

**일본** 재한군인군속재판을 지원하는 모임, 나고야 미쓰비시 조선여자근로정신대소송을 지원하는 모임, 강제동원진상규명네트워크, 조선인강제노동피해자 보상입법을 추진하는 일한공동행동, 일본제철징용공재판을 지원하는 모임, 노!합사(NO!합祀)



조세이탄광 희생자 추도비에 모인 한일시민(2015.3)



강제동원문제의 종합적 해결을 위해 모인 피해자와 한일 시민(2017.5)



## :: 단체소개

### 강제동원진상규명네트워크

한국의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2005년 7월 일본 전국 각지 시민이 참가하여 결성. 피해자 유골 조사와 미불임금의 공탁문제, 우편저금 문제 등 한국의 위원회와 협력·연대하여 그 실태 해명과 정보공개 등을 일본정부에 요구하는 활동 전개. '일본의 메이지 산업혁명 유산' 등재 당시 2차례 성명 발표

### 민족문제연구소

1949년 친일파에 의해 와해된 반민특위 정신을 계승하고, 친일문제 연구에 평생을 바친 고 임종국 선생의 유지를 이어 1991년 설립. 한국 근현대사의 쟁점과 과제를 연구 해명하고, 한일 과거청산을 통해 왜곡된 역사 바로 세우기 활동. 『친일인명사전』, 『일제식민통치기구사전』 등 사전 편찬·발간, 강제동원피해자·유족의 피해조사와 재판지원, 증언집 발간, 자료수집과 전시 등 학술연구와 실천운동 전개. 서울 용산에 「식민지역사박물관」 개관 추진

## :: 사진과 자료 제공·협력

강제동원진상규명네트워크, 민족문제연구소, 오카마사하루기념 나가사키평화자료관, 우라카미형무지소중국인추도비건립위원회, 일본제철징용공재판을 지원하는 모임, 일중우호협회 후쿠오카현연합회 오무타지부, 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 POW연구회

### 한일 시민이 함께 만든 세계유산 가이드북

### 일본의 메이지 산업혁명 유산과 강제노동

발행일 2017. 11. 28

편집·발행 민족문제연구소·강제동원진상규명네트워크

민족문제연구소 02462,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왕산로283(금은빌딩 3층)

TEL 02-969-0226 누리집 <https://www.minjok.or.kr>

강제동원진상규명네트워크 657-0054, 神戸市灘区山田町 3-1-1 (재)고베학생청년센터

TEL +81-78-851-2760 누리집 <http://www.ksyc.jp/sinsou-net>